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08.26 - 11.23
2025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강령:
영혼의 기술
안내 책자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안내 책자

08. 26 - 11. 23

2025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 CITY BIENNALE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인사말	5
기획의 글	13
장소	19
강령: 영혼의 기술	43
0. 부활 카페	44
1. 어제 온다면, 내일은 최초가 되리라	54
2. 마녀와 영매의 것	82
3. 트랜스	108
4. 실천적 우주론	120
5.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며, 환자를 씻기고, 귀신을 쫓아내라	134
6. 테크네	146
7. 등가 교환	160
8. 적들이 승리한 세상에 망자의 안식은 없다	174
9. 유리드미	194
10. 시네마	208
공공 프로그램	215
작가 소개	235

인사말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제목은 《강령: 영혼의 기술》입니다. 2000년, 원년의 비엔날레가 도시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예술, 산업, 기술의 삼각 구도를 통해 미래의 도시 서울을 기획하고자 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사분의 일 세기를 지나 기술이 우리의 영혼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되묻는 비엔날레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질문은 비엔날레 원년의 원칙이나 기대감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술이라는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낯설게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을 촉구하는 역설로서 공명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두 번째 국제 공모를 통해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를 예술감독팀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모의 과정에서 미술관의 활동 반경 너머에서 동시대의 다양한 현대미술 실천가들과 접속할 수 있었고, 그동안 전개되어 온 비엔날레의 축적된 사유와 역사의 연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가 탐구하는 영혼의 세계, 특히 여러 시간과 장소를 가로질러 전개되었던 영적 세계와의 접속은 사실상 많은 예술가의 오랜 열망이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교와 믿음의 체계가 존재하는 한반도의 수도 서울에서 영혼이라는 주제는 시대적 문제의식이기보다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가치에만 편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세기를 가로질러 한자리에 모인 다양한 지역의 예술가와 그들의 실천은 ‘영혼’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우리 삶의 보다 근원적인 질문들—신의 세계, 인간의 가치 체계, 죽음에 연루된 헌신과 숭고함, 자연을 표상하는 추상적 형상 등에 더욱 깊이 들어서게 합니다.

익히 알려진 미술사의 성전을 벗어나, 19세기의 혁명적인 실천가들이 탐구했던 사유의 세계는 우리가 현재 마주하는 현상적 실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1901년 애니 베전트, C. W. 리드비터와 여러 협력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여러 상념의 형태들, 1860년대 조지아나 하우튼이 실체화하고자 했던 신성의 진동, 1920년대 루돌프 슈타이너가 주창한 인지학과 실천 방법론, 1930년대 힐마 아프 클린트가 시각화하고자 했던 영성과 과학적 발견의 교차점, 엠마 쿤츠가 제시한 이상적 영성의 세계, 1940년대 마야 데레이 살퍼본 필름의 비선형적 시간의 창출, 1970년대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데구치 오니사부로, 이승택,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가 다시 불러온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선주민 문화는 보다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지혜와 상념의 힘을 각성시켜

줍니다. 색, 선, 빛과 사운드의 세계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꿈, 환영, 환각, 상상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세계는 지적이고, 무한하며, 현실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매개합니다.

이번 비엔날레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작가와 참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작품을 대여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디아재단, 뉴욕; 루돌프슈타이너아카이브, 도르나흐; 르부아, 파리; 마이크켈리에술재단, 로스앤젤레스; 빅토리아영성주의연합, 노스 멜버른; 블라인드스팟갤러리, 홍콩; 비주얼뮤직센터(CVM), 로스앤젤레스; 아트하우스헨리베글린, 서울; 엠마쿤츠재단, 뷔렌로스; 얀못, 브뤼셀; 오모토재단, 가메오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코리타켄트재단, 뉴욕; 파이어스톰재단, 스톡홀름; 티나갤러리, 런던; P.P.O.W, 뉴욕과 서울의 개인 소장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엔날레 전시와 행사는 여러 후원사와 협력사의 도움 없이는 온전하게 개최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후원해 주시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업 후원사 하나금융그룹, 일진문화재단, 유진투자증권, 전시 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컬러 카페트 제작을 후원해주신 (주)불가리코리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전 행사를 함께한 ICI 베를린, 도쿄의 오이에이
큐레토리얼 소사이어티, 영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하는
프리즈와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도 감사드립니다.

비엔날레의 주인공인 여러 작가분의 작품 제작과
리서치 여행에 도움을 주신 주한영국문화원, IHI 중공업,
덴마크예술재단,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전시와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미디어 기기, 페인트, 음료 협찬을 통해 행사의 품격을
높여주신 삼화페인트공업(주), LG전자, 한국엡손, 복순도가,
독립맥주공장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시와 프로그램
장소 협력, 홍보 협력, 퍼포먼스 제작 협력 등으로 참여해
주신 키아프 서울, 낙원상가,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주한독일문화원, 서울문화재단과 청년예술청 SAPY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비엔날레의 전시와 더불어
출판물—안내 책자와 도록이 함께 준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비엔날레의 영문 편집자
벤 이스턴, 국문과 영문 번역과 감수자, 디자인을 맡은
논플레이스 스튜디오와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세걸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엔날레팀 모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기획의 글

강령: 영혼의 기술

“예술은 종교의 어머니입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로 밝은 색상의 도자기 찻그릇 여럿이 놓여 있습니다. 이 찻잔들은 한 신비주의자가 수천 번 만트라를 되뇌며 정교한 갈대 펜 자국을 새겨 넣은 작품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께서 전시에서 소개할 찻그릇을 예닐곱 개 정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팀(큐레이터)으로서 이번 작업을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근현대 미술의 전개에 있어 영적 경험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동안의 정통 미술사는 주로 예술의 독립성, 형식적 혁신 혹은 사회 비판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전형적인 이론적 프레임에 포섭되기를 거부해 온 신비하고, 예지적이며 은밀한 예술 창작에 주목하며, 대안적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은 영성주의, 샤머니즘, 테크노 신비주의, 조상 숭배, 점성술, 마녀의 마술 등 기존 지식의 체계 바깥에서 이단적인 앞의 방식에 시선을 돌려 영감을 얻어 왔습니다. 이처럼 영적 실천에 관한 관심이 다시 활성화된 상황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 온 방식이 처한 광범위한 위기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예술적 흐름을 보다 너른 사회·정치·역사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주요 전시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은 현대성만큼이나 풍부한 영적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로,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에 이상적인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기획은 역사적 선례로부터 출발합니다. 20세기로 전환되던 시기, 사회적 격변기의 방향 상실과 더불어 영적 실천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확산한 당시를 떠올려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고, 비록 그 형성적 역할이 대체로 간과되어 왔지만, 이는 현대미술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혁명이 남긴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감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격동기의 유산을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연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영매가 청중을 영적 세계와 연결하는 강령(降靈 séance)의 확산은 당대의 영적 혁명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영화 상영, 정신분석 세션, 실험적인 연극과 퍼포먼스와 같은 의례들도 같은 용어로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령’을 이번 전시의 은유이자 모델로 삼아, 일상 너머의 세계와 접속되는 매개적 경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변화기를 살아가며 예술가들은 여러 잊힌 전통을 다시 발견합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 애니 베전트, 조지아나 하우튼, 힐마 아프 클린트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비밀스러운 추상미술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적 존재로 다시 떠오릅니다. 이들의 실천은 재현적이거나 비평적 예술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현실과 연결되기 위한 예술적 비전으로서 제안됩니다.

대구치 오니사부로의 도자기는 단순한 미적 향유를 위한 예술적 오브제이기보다는, 영적 메시지가 집약된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엠마 쿤츠와 요셉 보이스는 예술을 치유와 균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보았습니다. 백남준은 무속적 의례와 동시대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전통적인 우주론을 기술적 진보와 대치시키기보다는, 그 목적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해방적 실천들을 오늘날의 순간들로 연결합니다. 서구 헤게모니가 기대어 온 ‘계몽적’ 합리주의에 저항하는 작품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뒤흔들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반자본주의적 동시대 문화 실천들과 공명합니다. 이번 전시에 모인 예술가들은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다중적 세계와의 공존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과학이나 근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세계를 질서로 재편하고 분류해 온 지배적인 방식이 배제했던 힘, 개체들, 지식이 함께할 수 있는 현실 인식의 틀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전통과 영적 철학의 밀도가 높은 한반도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파열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도시

서울은 단순히 이번 전시의 무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주인공이 됩니다. ‘강령’으로 무대화된 이번 전시는 마법을 걸고, 매혹하고, 전달하고, 방해하길 원합니다.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익숙한 지각의 논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고, 알고, 존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포털이 되고자 합니다.

이곳은 영적 만남, 지각의 확장, 꿈결 같은 교감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출한 예술품이 말을 걸고, 소환하며, 변화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1] 대구치 오니사부로와 관련된 기관의 방문은 영적 실천에 대한 리서치의 일환으로, 2025년 6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장소

서울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동 한가운데에 자리한 이곳은, 지난 23년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928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성재판소의 파사드를 보존하여 기존 스타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한 건물로, 이 장소는 이번 비엔날레가 말하고자 하는 ‘과거의 정신이 오늘날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공연, 강연이 열리는 장소로, 비엔날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화-목 10.00-20.00

금 10.00-21.00

주말·공휴일 10.00-19.00 (8월-10월), 10.00-18.00 (11월)

월요일 휴관. 추석연휴 정상 개관

입장료 무료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10, 11, 12번 출구

버스 172, 472, 600, 602, 7019 등 시청, 서소문청사 정류장

편의시설 사물함, 관람용 의자, 휠체어, 엘리베이터, 수유실

전시해설 전시 도슨트의 해설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와 3시에 있습니다.

<https://mediacityseoul.kr/>

<https://sema.seoul.go.kr/>

1F

엘리베이터

안내데스크

세마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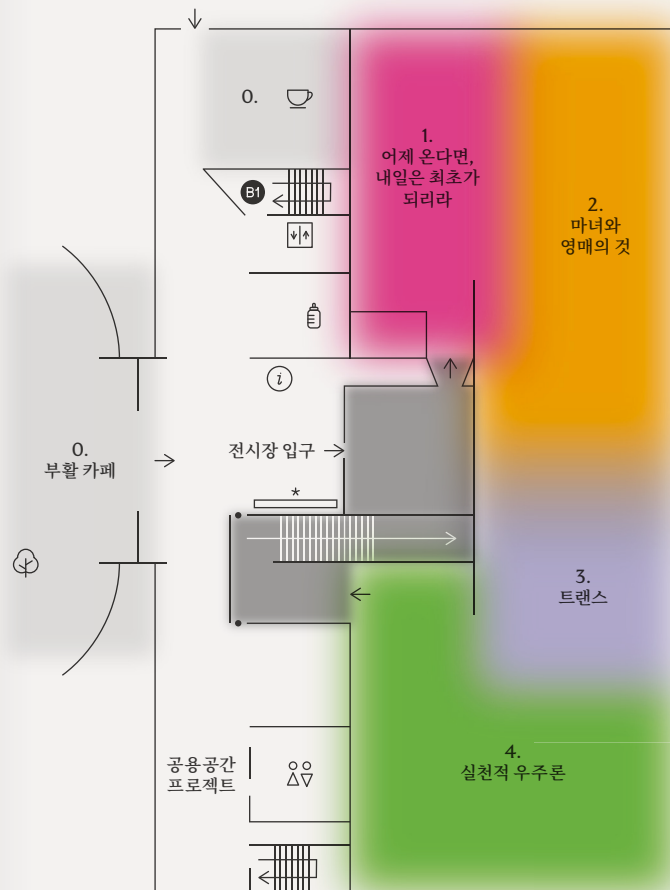
화장실

수유실

* 크레딧 월

사물함, 세마홀

• 출입구/비상구



엘리베이터

안내데스크

세마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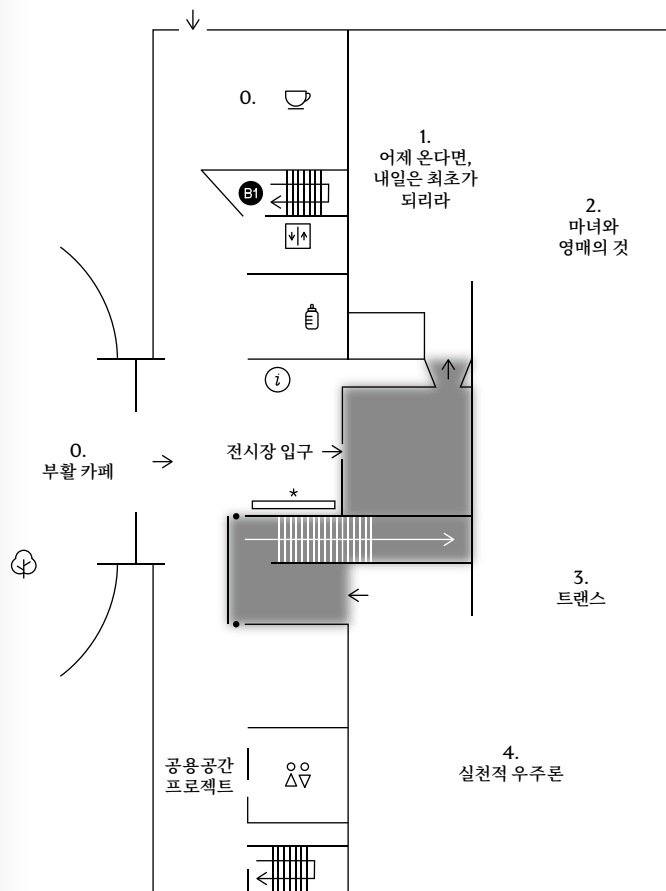
화장실

수유실

* 크레딧 월

B1 사물함, 세마홀

• 출입구/비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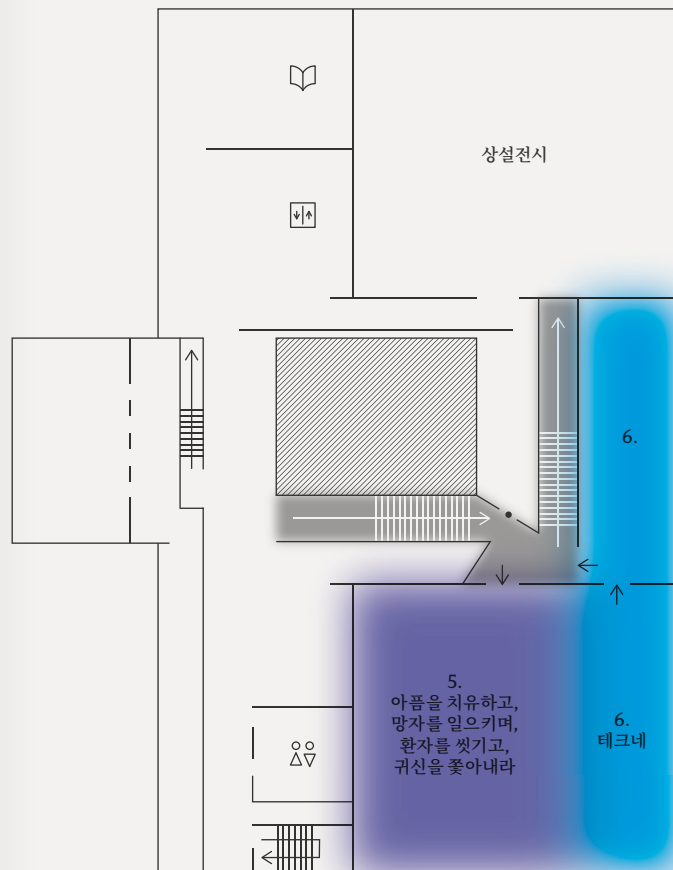
2F

엘리베이터

도서자료실

• 출입구/비상구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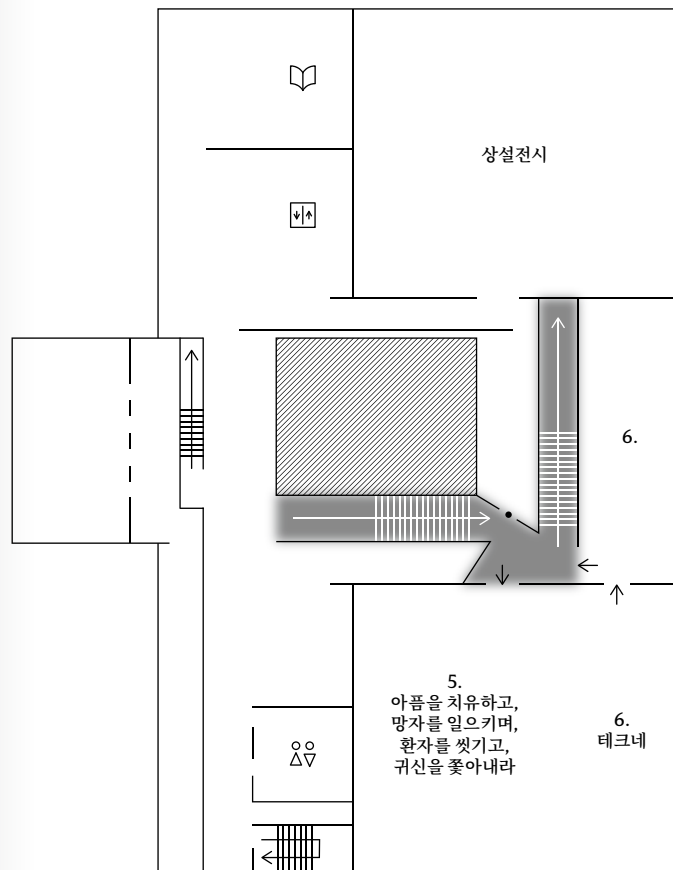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도서자료실

• 출입구/비상구

화장실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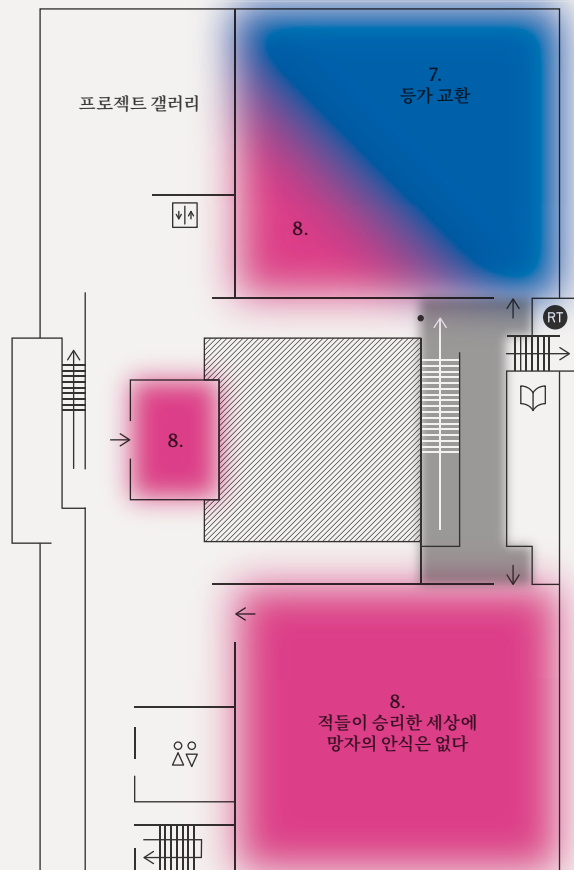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서점

• 출입구/비상구

화장실

SeMA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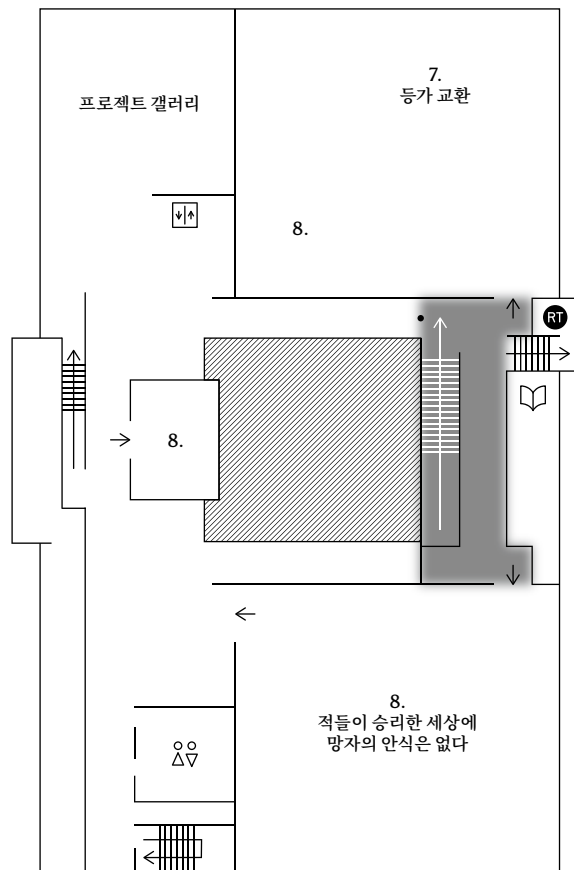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서점

• 출입구/비상구

화장실

SeMA 옥상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낙원시장 위로 지어진 낙원상가는 한국의 근대적 건축양식을 상징하는 건물로, 건립 이후 수십 년간 서울의 음악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의 문화적 구조를 형성하는 이 역사적인 건물의 중요성은, 건물을 철거하려는 시도에 맞섰던 시위들에서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서울에서 이 아케이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격변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낙원상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325, 339, 412호

화-목 10.00-20.00

금 10.00-21.00

주말·공휴일 10.00-19.00 (8월-10월), 10.00-18.00 (11월)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

버스 종로01, 종로02 낙원상가, 종로2가. 탑골공원 정류장, 01A

남인사마당 정류장

143, 160, 201, 262, 270, 271, 273, 7212 등 종로3가. 탑골공원

정류장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https://enakwon.com/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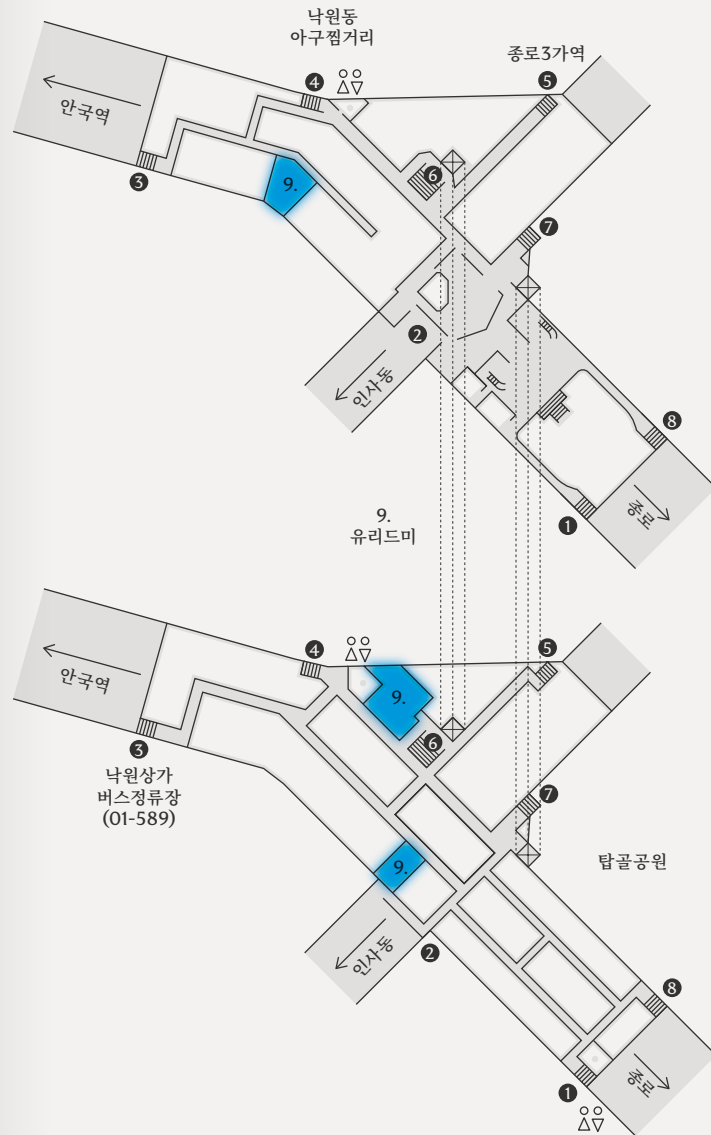
☒ 엘리베이터

① ~ ⑧ 출구

○○ 화장실

4F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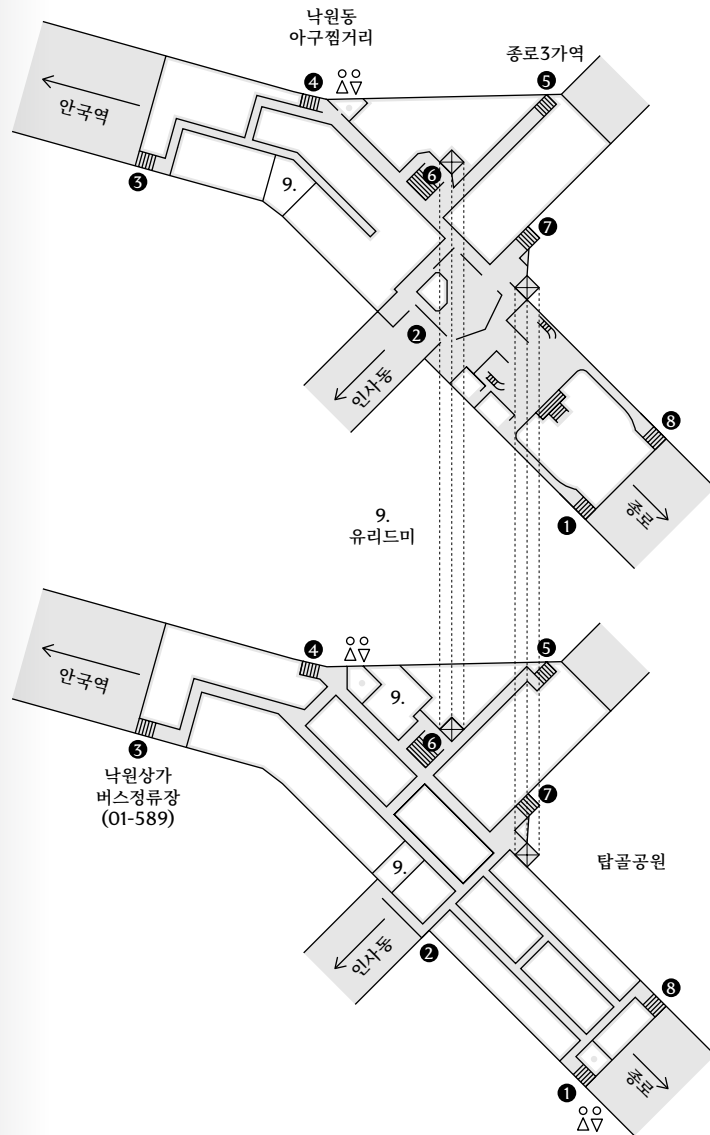
☒ 엘리베이터

① ~ ⑧ 출구

○○ 화장실

4F

3F



2002년 낙원상가에서 개관한 이후, 몇 차례 이전을 거쳐 현재의 경향신문 건물에 자리 잡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는 매년 수백 편의 영화를 본연의 의도에 맞춰 상영합니다. 회고작, 특별 프로그램, 정기 행사와 토크 세션 등을 개최하는 문화 및 교육 기관인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는 20세기부터 동시대까지 비교적 덜 알려진 영화사를 주목하는 이번 비엔날레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시네마테크 서울 아트시네마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아트힐 2층

비엔날레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상영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세 일정표는 210-214쪽 참조 바랍니다.

입장료

일반 9,000원

단체(20명 이상) 7,000원

청소년/노인/장애인 6,000원

관객회원 5,000원(가입비 60,000원)

10회 관람권 80,000원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버스 160, 260, 270, 271, 273 등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앞 정류장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https://www.cinematheque.seoul.kr/>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업을 위한 공간 청년예술청은 동시대 미술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의 경계를 시험하는 비엔날레의 목적에 걸맞은 장소입니다. 급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 공간은 도시의 문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년예술청 SAPY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6-26
어바니엘 충정로 102동 지하 2층 그레이홀

2025. 08.25 - 09.07

* 퍼포먼스는 비엔날레 개막 후 첫 2주간 진행됩니다.

화, 수, 금 19.30-21.00

토 13.00-14.30 / 19.30-21.00

일 13.00-14.30

*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공연 없음

* 러닝 타임: 90-100분, 휴식 시간 없음

언어 영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한국어
한국어 자막 제공

무료 입장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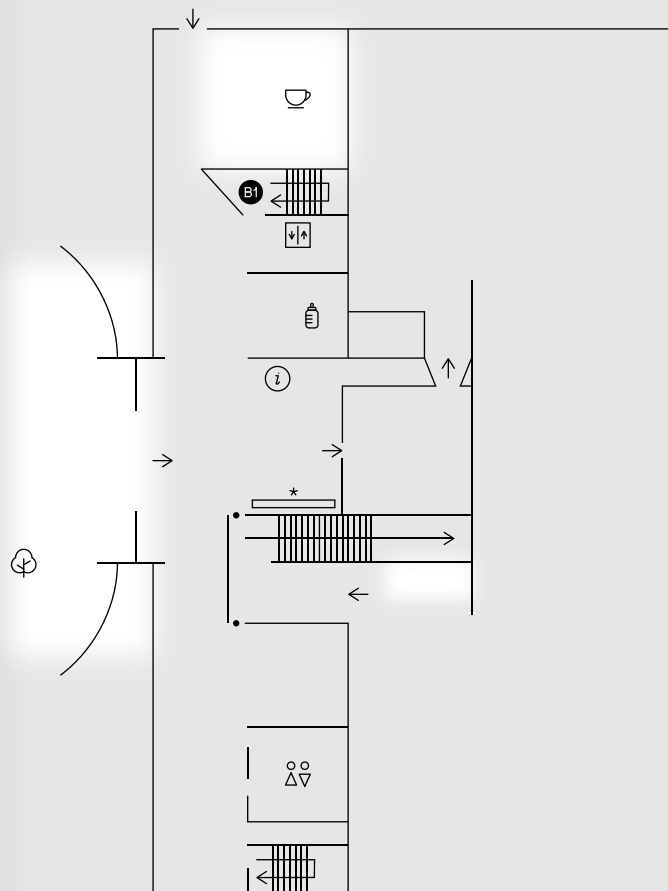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 8번 출구

버스 160, 171, 273, 602, 6002 등 충정로역 정류장

<https://www.sapy.kr/>

강령: 영혼의 기술

0. 부활 카페



1979년 쿠바 아바나. 새로운 국립 극장이 문을 엽니다. 건물은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이 도시를 대표하는 식민지 시대의 건축과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극장 내부에 있는 카페의 이름 ‘칸탄테’는 스페인어로 ‘가수’ 혹은 ‘기도로 이끄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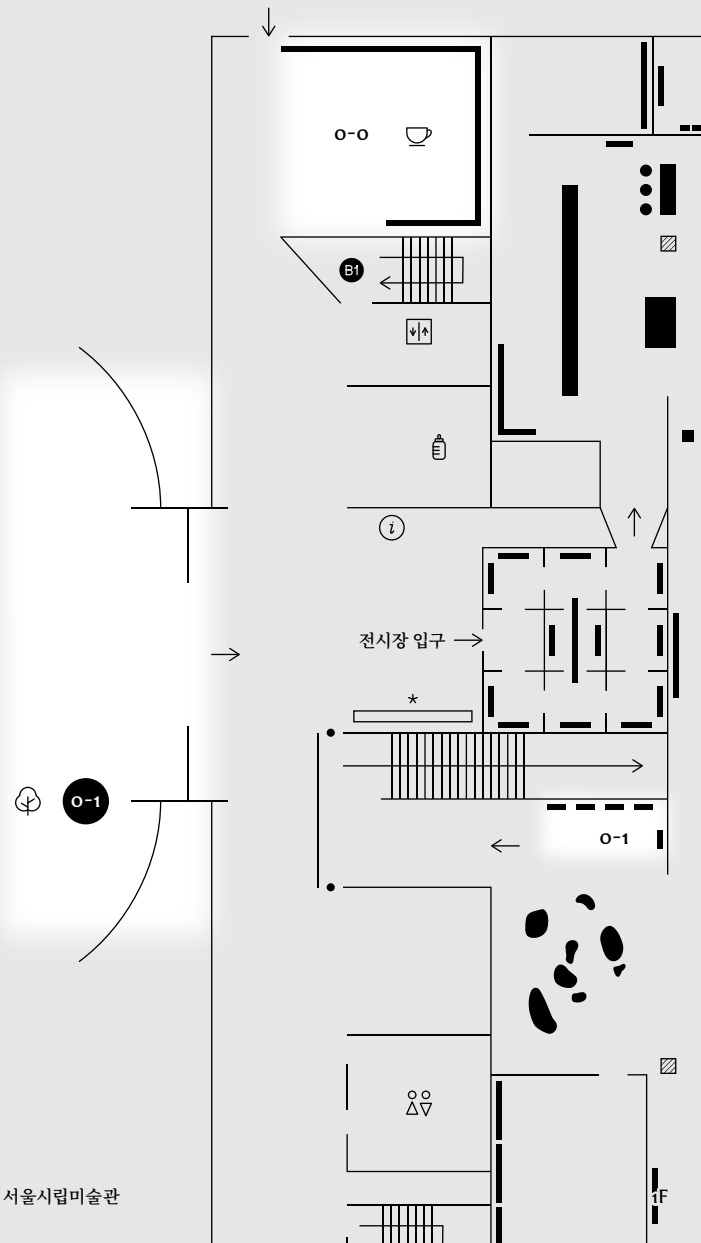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의 정교한 금속 부조 작품이 카페 공간의 전면을 가로지릅니다. 추상적인 형상과 교차하는 선들은 서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비밀 종교 단체 ‘아바쿠아’의 상징체계를 묘사합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는 국가 무신론을 표방하는 수십 년간 아바쿠아를 탄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쿠바의 가장 명망 있는 문화 기관 중 하나인 국립 극장이 케네디트 모랄레스에게 이러한 작품을 의뢰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초 금속 부조 작품은 제거되고 해체되어 고철로 팔려나갑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승택 작가는 자신의 회화와 조각 작품을 불태우는 예술 행위를 감행합니다. 불교 전통의 의식에서 화장은 신성 모독 행위가 아닌, 물질을 영적 차원으로 전이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예술품이 문화 상품이자 재화로서만 가치화되고,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거래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이승택은 예술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단 몇 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케네디트 모랄레스의 작품을 재구성하고, 이승택 작가에게 미술관 마당에서 분신행위예술의 재연을 요청했습니다. 본 전시는 이들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O-O.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O-1. 이승택



O-O.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아바쿠아 벽화〉, 1979

검정색으로 코팅된 메탈시트에 레이저 커팅.

1,100 × 20,000 × 2 mm

디자인: 콜렉티브. 재제작: 에리카 콕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1942-2016)의 작품은 쿠바의 아프리카계 영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술가이자 시각 예술인·지식인·작가·음악인으로 구성된 콜렉티브 ‘그루포 안틸라노’의 창립자인 케네디트 모랄레스는 식민 정권과 공산 정권 모두에게서 소외되었던 아프로-쿠바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업은 앤틸리스 제도(카리브에 속한 지역에서 루케이언 제도를 제외한 지역)의 역사와 아프리카 문화 간의 연결성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프로-쿠바의 신, 신화, 의례적 실천을 재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처럼, 케네디트 모랄레스는 세속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영적인 경험에 전념했고, 이런 경향이 그의 예술 활동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적대감, 검열, 공산주의 정통성에 반하는 이념에 대한 억압이 두드러졌던 회색 시대(1971-1975)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5년간의 회색 시기가 끝나고 쿠바가 앙골라 내전에 개입한 이후 아프리카에 관한 공식적 태도의 전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1979년 쿠바 정부의 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관한 국립극장이 케네디트 모랄레스에게 벽 설치 작품을 의뢰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작품이 자유민 출신 아프리카인이 설립하고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탄압받았던 비밀 종교 단체 ‘아바쿠아’를 노골적으로 오마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속적이고 공적인 문화 기관의 중심부에 아프로-쿠바의 영적 상징들을 이식했던 이 작품은 1990년대에 철거되었고, 이번에 재구성하여 선보이는 작업은 이 작품의 몇 장 남지 않은 사진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O-1. 이승택

- (1) <분신행위예술전> 재연, 1989/2025
퍼포먼스 및 남겨진 비조각. 30분(퍼포먼스), 가변

크기(남겨진 비조각)

재연 연구 및 설치: 아트랩반(조재홍, 엄철호)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작가 및 갤러리현대, 서울 제공

퍼포먼스는 8월 25일 서울시립미술관 마당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17쪽을 참고해주세요.

- (2) <무제(하천에 떠내려가는 불타는 화판)>, 1988
종이에 크로모제닉프린트. 81.5 × 116 cm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장 및 제공

- (3) <분신행위예술전> 퍼포먼스 기록 사진, 1989
C-프린트에 채색. 각 52 × 61 cm(2점)
작가 및 갤러리현대, 서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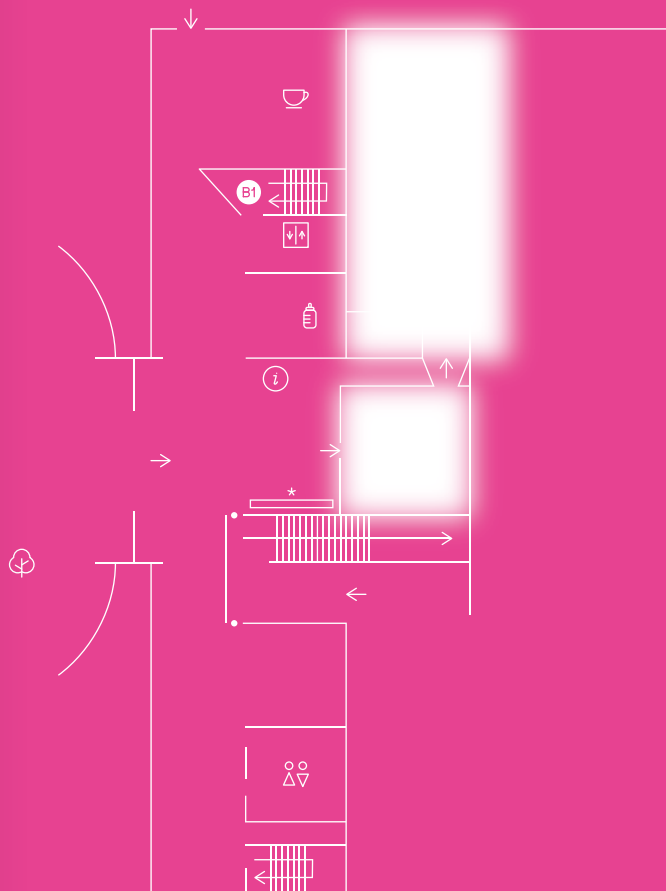
- (4) <무제>, 1990년대/2025 재제작
C-프린트. 56.44 × 81 cm; 81 × 56.44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작가 및 갤러리현대, 서울 제공

이승택은 70여 년에 걸쳐 회화와 조각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예술과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를 뒤흔드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대지미술과 한국 무속 전통의 결합을 보여주는 이승택의 작업은 불, 물, 바람, 연기 등 자연 요소들과 나뭇가지, 한지, 돌, 밧줄, 철사 등 상징적인 오브제들을 폭넓게 결합합니다.

<분신행위예술전>에서 이승택의 작업은 불로 인해 예술로 변형되는 물질이 됩니다. 1989년 작가는 자신의 회화와 조각 작품들을 쌓아 올려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물질이 예술로 승화되는 연금술적 과정은 거꾸로 작동하며, 자연의 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창조 영역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덧없는 불길은 작가의 도발이자 의도의 표명, 즉 이승택이 부르는 ‘비미술’이라는 개념의 행위입니다.

1. 어제 온다면, 내일은 최초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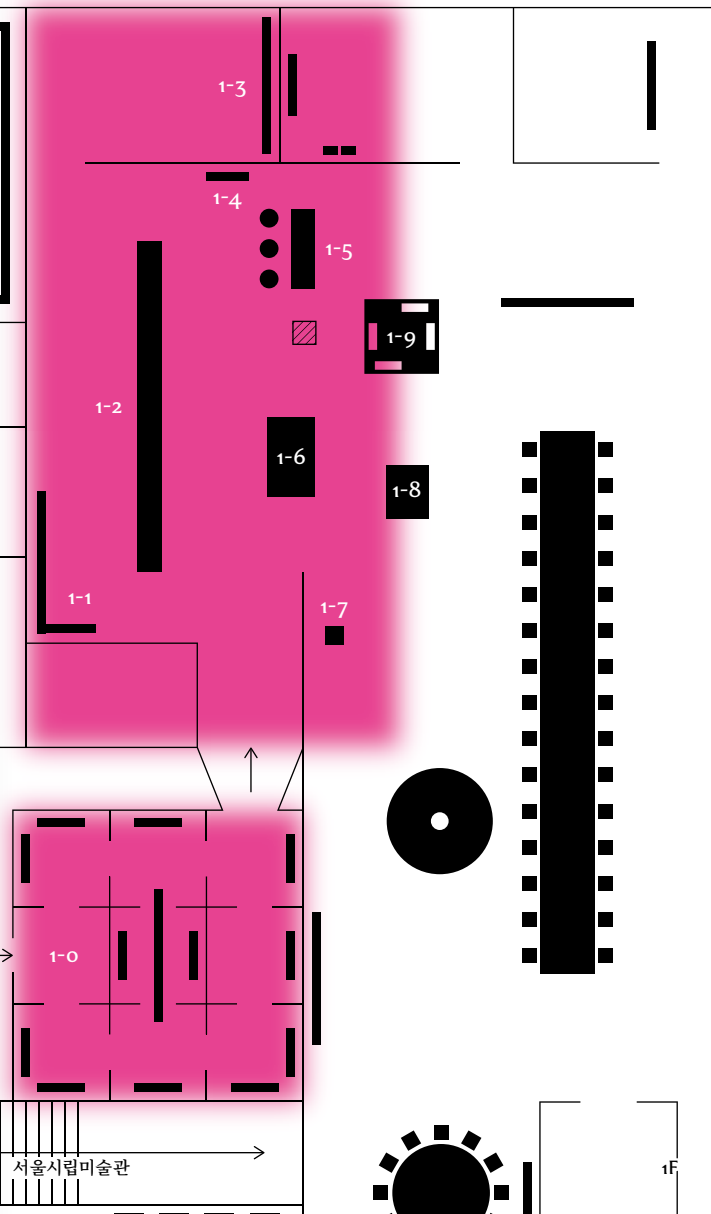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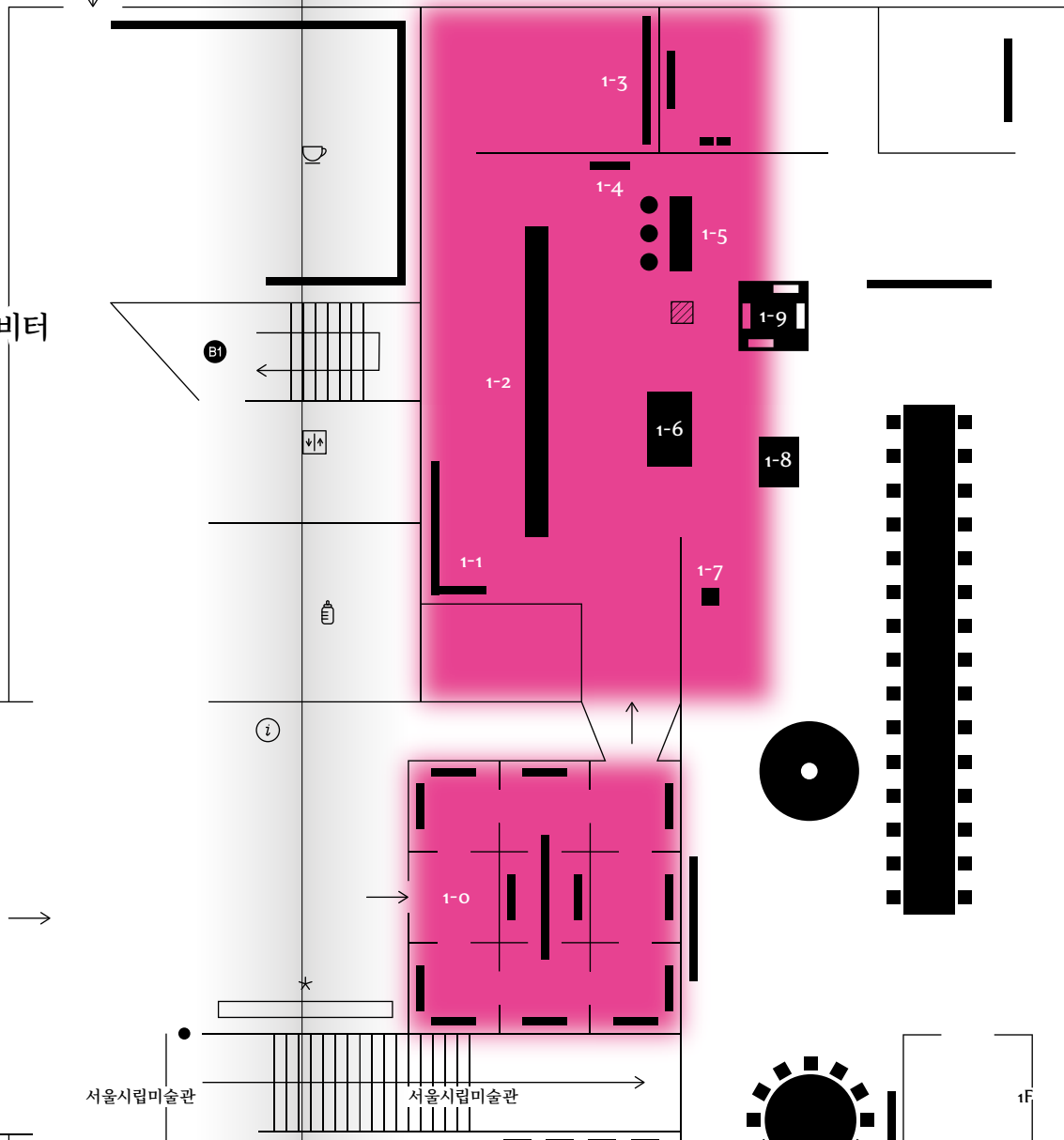
우리는 대부분 현대 미술이 추상으로 나아간 것이 역사적 자율성의 필연적 결과라고 배워왔습니다. 국가나 종교의 후원으로부터 해방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른 매체를 다루는 예술가들은 재현을 벗어나 색채와 형식에 관한 ‘순수한’ 미학적 실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사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와 같은 서사는 선구적으로 여겨지는 여러 추상 작품들이 애초에 예술품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861년, 조지아나 하우튼은 천사와 성인들의 지시에 따라 ‘영혼 그림’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우튼의 그림에서 선, 고리, 선명한 색채의 파열이 겹쳐지며 자아내는 복잡한 구성은 현상의 세계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신성한 증언들’이었습니다.

1906년, 힐마 아프 클린트는 아말리엘이라는 영적 안내자의 의뢰를 받아 초월적인 세상의 구조를 드러내는 추상 회화 연작 <신전을 위한 그림>을 창작하게 됩니다. 이 그림들은 무심한 감상이 아니라 영적 교감을 위한 작품입니다. 30년 후, 치유사이자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엠마 쿤츠는 트랜스 상태에서 숨겨진 에너지와 치유력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기하학적 드로잉을 제작합니다. 이 이미지들 역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진단, 명상, 회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종교 지도자가 영적 실천의 일환으로 도예를 접하게 됩니다. 테구치 오니사부로 손으로 수천 개의 찻잔을 빚으며 기도문을 외고, 재료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의례용이 아니라 변형, 즉 신성한 미래가 현재에 개입하며 만드는 흔적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대안적 역사 속에서 예술은, 완전한 자족적 원리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 1-0. 루돌프 슈타이너
- 1-1. 코리타 켄트
- 1-2. 조지아나 하우튼
- 1-3. 조던 벨슨
- 1-4. 힐마 아프 클린트
- 1-5. 데구치 오니사부로
- 1-6.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 1-7. 요셉 보이스
- 1-8. 백남준
- 1-9. 엠마 쿤츠



1-0. 루돌프 슈타이너

〈무제(1920년 3월 20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0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88 × 126 cm

〈무제(1920년 12월 5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0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0 × 143 cm

〈무제(1922년 2월 11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2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0 × 137 cm

〈무제(1922년 2월 19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2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0 × 130 cm

〈무제(1922년 12월 29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2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2 × 122 cm

〈무제(1923년 10월 20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3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3 × 147 cm

〈무제(1923년 11월 30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3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88 × 127 cm

〈무제(1923년 12월 21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3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1 × 128 cm

〈무제(1920년 4월 5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0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3 × 134 cm

〈무제(1920년 4월 7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0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92 × 112 cm

〈무제(1924년 6월 30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4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88 × 133 cm

〈무제(1923년 6월 9일 스위스 도르나흐 강연의 철판 드로잉)〉, 1923

종이에 아카이벌 이미지 실크스크린. 89 × 138 cm

실크스크린 제작: 에스에이에이(SAA)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루돌프슈타이너아카이브, 도르나흐 제공

철학자, 사회 개혁가, 건축가인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는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신지학 운동과 결별한 뒤 ‘인지학’을 창시했습니다. 여러 지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을 융합한 인지학의 영적 수련 프로그램은

스위스 피테아눔에 본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확산된 ‘인지학 협회’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각본 없이 수천 회에 달하는 공개 강연을 진행했고, 그가 강연에서 사용했던 칠판은 생각을 위한 도구이자, 청중을 집중하게 하고, 매개를 시각화하는 도구였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칠판에 그려지는 도식적인 스케치는 점차 추상적인 그림이 되었고, 이것은 지적 사유의 흐름을 담은 기록이자 마음의 액션 페인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강연을 마칠 적마다 검은 도화지에 색분필로 그린 드로잉들을 칠판에서 떼어낸 뒤, 고치고, 날짜를 표기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많은 작품이나 기록물처럼, 이 드로잉들 역시 처음부터 관습적 개념의 예술품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유와 몸짓이 결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되는 이 드로잉 연작은 슈타이너가 ‘사유 이미지’라고 불렀던 시각적 사고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의 드로잉들은 힐마 아프 클린트부터 요셉 보이스까지 선구적인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들 모두는 예술과 과학이 동일한 영적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던 슈타이너의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1-1. 코리타 켄트

〈신성한 마음〉, 1969

세리그래프. 58 × 30 cm(액자 62 × 35 × 2 cm)

〈녹색 손가락〉, 1969

세리그래프. 58 × 29 cm(액자 62 × 35 × 2 cm)

〈화살의 심장〉, 1969

세리그래프. 58 × 23 cm(액자 62 × 35 × 2 cm)

〈피에타 1969〉, 1969

세리그래프. 58 × 29 cm(액자 62 × 35 × 2 cm)

〈시간〉, 1965

세리그래프. 67 × 24 cm(액자 62 × 35 × 2 cm)

〈그저 산다는 건 거룩한 것〉, 1965

세리그래프. 33 × 22 cm(액자 62 × 35 × 2 cm)

코리타아트센터, 로스앤젤레스 소장 및 제공

코리타 켄트(1918-1986)가 열여덟 살에 입회한 성모성심수녀회는 교육을 사명으로 삼는 수녀회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타 수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 신앙적 헌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초기 판화 작업은 종교 이미지들을 복잡하게 중첩하여 구성했으나, 점차 성경 구절과 문학에서

인용한 문구들에 상업적 이미지나 노래 가사를 결합하였고, 팝아트 특유의 강렬하고 직접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사회 정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세리그래프 작품들은 특히 1960년대의 격동기 속에서 작가의 정치적 관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폭력과 분열의 원인을 되돌아보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1968년 수녀회를 떠나기 전후에 완성된 작품들에 새겨진 문구는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그녀가 추구한 사명의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에타 1969〉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 사람들이 파괴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 조지아나 하우튼

〈주님의 힘〉, 1864. 12. 08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3 × 31.8 cm

〈주님의 손〉, 1863. 04. 10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2.5 × 32 cm

〈주님의 자비〉, 1863. 01. 23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3 × 32 cm

〈주님의 눈〉, 1870. 10. 24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5 × 35 cm

〈주님의 많은 자비〉, 1864. 12. 16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3 × 32 cm

〈도처에 계신 주님〉, 1864. 10. 31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3 × 32 cm

〈주님의 눈〉, 1862. 09. 22

종이에 수채 및 과슈. 32.5 × 23.5 cm

〈하나님의 눈〉, 1862. 09. 25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2.5 × 32.2 cm

〈하나님의 사랑〉, 1864. 08. 05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3 × 32.2 cm

〈부활하신 주님〉, 1864. 06. 29

종이에 수채 및 과슈. 23 × 32 cm

빅토리아영성주의연합, 노스 멜버른 소장 및 제공

조지아나 하우튼(1814-1884)은 1859년 마흔 중반의 나이에 영성주의를 처음 접했습니다. 명성을 가진 예술가였으나 9년 전 세상을 떠난 언니 질라와 강령술을 통해 교감한 그녀는 이 운동이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실한 기독교적 믿음과 양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확신하였고, 이후 영매가 되기 위한 수련까지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교신된 영혼의 인도로 손을 움직여 그림을 그렸다는 한 영매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연락한 하우튼은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 질라와 협업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신 하우튼은 ‘레니’라고 알려진 작가 안젤로를 소개받습니다.

1861년 하우튼은 레니의 인도로 손을 움직여 그림을 그립니다. 작업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힐마 아프 클린트처럼) 밑그림이나 수정 없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훗날 그녀는 “이 새로운 능력 안에서 나는 삶의 소명을 찾았고, 매일 매주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갔다”고 적었습니다.

하우튼은 생전에 여러 영혼들과의 교신을 통해 독창적인 수채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림의 뒷면에는 교신된

영혼의 목소리를 옮겨 적은 주석이 남아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 성 스테파노의 영혼은 하우튼을 통해 그의 그림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하였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티치아노는 〈주님의 눈〉(1862. 09. 22)에서의 초기 추상적 구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재현한다고 묘사합니다.

1-3. 조던 벨슨

〈매혹〉, 1961

16mm 필름을 변환한 단채널 비디오(컬러, 사운드, 디지털 복제). 8분(반복 재생)

〈명상〉, 1971

16mm 필름을 변환한 단채널 비디오(컬러, 사운드, 디지털 복제). 6분(반복 재생)

미국영상복원재단 복원. 비주얼뮤직센터(CVM),
로스앤젤레스 제공

어떤 길을 선택해서 자신을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진리를 찾는 것처럼, 실험영화의 위대한 선구자 조던 벨슨(1926-2011)의 작품은 우리를 저 먼 우주의 경계와 인간 의식의 심연으로 이끕니다.

작가는 최면적 성격을 가진 단편 영화 〈매혹〉을 “분자 구조와 천문적 결과가 잠재적이고 주관적 현상과 결합된 구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의 진화를 시각화한 것 같은 이 작품에서 단순한 추상 도형들은 점차 복잡한 형상으로 변합니다. 폭발하는 색채와 소용돌이치는 패턴은 관객을 무아지경으로 이끌며, 형상은 허공 속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소멸하는 등 비선형적 방식의 전개가 계속됩니다. 벨슨의 표현대로 이 작품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매혹〉에서 느껴지는 우주적 장엄함과 대조적으로, 〈명상〉은 명상에 잠긴 내면의 상태를 시각화합니다. 작품의 초연 당시 벨슨은 종교 사상이 라마크리슈나의 말을 인용하여 작품을 통한 체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끝없이 빛나고 생명력 넘치며 기쁨이 가득한 바다를 보았다. 사방에서 반짝이는 파도가 우르르 몰려와 나를 집어삼켰고, 외부 세계를 향한 의식이 모두 사라졌다.”

1-4. 힐마 아프 클린트

〈타오르는 불꽃〉, 1930

종이에 수채. 47 × 31 cm

파이어스툼재단, 스톡홀름 소장 및 제공

현대 미술사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 고유의 자리를 각인시킨 기념비적 추상 회화 연작이 완성되고 오년 후인 1920년, 작가는 스위스 도르나흐에 위치한 인지학협회 본부인 괴테아눔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이후 십여 년을 이곳에서 보내며 협회 창립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슈타이너가 사망한 1925년부터 약 오년 동안 아프 클린트가 작품을 생산한 기록이 부재합니다.

인지학협회에 머물던 시기에 아프 클린트는 색채의 본질에 관한 슈타이너의 강연 연작을 통해 괴테의 『색채론』을 연구하였고, 이로 인해 그녀의 작가적 접근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1922년부터 아프 클린트는 슈타이너와 그의 지지자들이 개발한 수채화 기법인 ‘웨트 온 웨트(종이에 물을 먹이고 마르기 전 색을 올려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는 기법)’를 받아들였고, 색채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드러내는 스펙트럼적 형상과 풍경들은 영적 향유를 돕는 매개로 작동하게 됩니다.

1930년 7월에 완성된 〈타오르는 불꽃〉은 반추상적 양식을 가진 수채화로, 아프 클린트의 작품 세계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겹겹이 쌓인 색채의 후광을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형상은 햇살 가득한 산기슭에서 타오르는 심장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 작품은 아프 클린트가 인지학협회 회원이자 섬유 예술가였던 엘사와 막다 예루드 자매에게 선물했던 수채화 작품 중 하나로, 일종의 독특한 자화상이면서 계시의 순간에 관한 재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1-5.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

〈요완(耀盃)(빛나는 찻잔)—와코(조화와 빛)〉, 1944

라쿠다완(樂茶碗). 6.9 × 11.4 × 11.5 cm

〈요완(耀盃)(빛나는 찻잔)—타마다레(종으로 장식된 대나무
블라인드)〉, 1944년 경

라쿠다완(樂茶碗). 7.9 × 11 × 10.9 cm

〈요완(耀盃)(빛나는 찻잔)—아야니시키(낙엽)〉, 1944년 경
라쿠다완(樂茶碗). 8.9 × 10.2 × 11.6 cm

〈요완(耀盃)(빛나는 찻잔)—미야마노 사쿠라(미야마 벚꽃)〉,
1944년 경

라쿠다완(樂茶碗). 8.4 × 10.4 × 10.6 cm

〈요완(耀盃)(빛나는 찻잔)—텐고쿠 31(31번째 천국)〉, 1944
라쿠다완(樂茶碗). 8.4 × 11.3 × 11.2 cm

〈요완(耀盃)(빛나는 찻잔)—미로쿠(미륵)〉, 1944년 경
라쿠다완(樂茶碗). 8.3 × 10.5 × 10.6 cm

〈요완(耀盃)(빛나는 찻잔)—우주(나선)〉, 1944년 경
라쿠다완(樂茶碗). 7.8 × 11.2 × 11.6 cm

천 받침대는 오모토(大本) 발원지인 아야베(綾部)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쇼와 시대의 칠복신(七福神)〉, 1935

16mm 필름을 변환한 디지털 비디오(흑백). 28분

오모토(大本)재단, 가메오카(亀岡) 소장 및 제공

1935년, 당대 일본 신토(神道)계의 신흥 종교였던 오모토의
지도자 데구치 오니사부로(1871-1948)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에 의해 구금됩니다. 수감 중 찻잔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된 오니사부로(1944년 말 석방된 후 단 15개월 만에
3,000점이 넘는 찻잔을 손수 제작했습니다.

오니사부로는 “라쿠다완 한 점을 만들 적마다
신도에서 ‘신의 뜻에 따른다’는 뜻을 가진 칸나가라
기도문을 수천 번 읊었으며, 내 영혼의 힘을 불어넣은 불, 물,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48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미술 평론가 가토 기이치로는 오니사부로의
찻잔에 요완(耀盃), 즉 ‘빛나는 찻잔’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요완이 국제적으로 소개되면서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는 영적 체험으로 빚어진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고유의 세계와 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원리의 발현을 볼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되는 각각의 찻잔은 오모토의 3대 영적
지도자인 나오히 데구치를 비롯해 교단의 여러 구성원들이
붙인 이름을 적은 나무 상자 뚜껑과 더불어, 오모토의
영적 발원지인 교토 아야베(綾部) 원단으로 수제작된 천

받침과 함께 전시됩니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오니사부로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는 찻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성영화〈쇼와 시대의 칠복신(七福神)〉에서는 정교한 의복을 갖추고 제목에 등장하는 칠복신을 연기하는 오니사부로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교리를 전파했던 선구적 시도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타이틀 카드는 오니사부로가 고전 운율에 맞춰 손수 쓴 서체로 제작되었고, 그가 직접 작성한 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름은 일본 당국이 오모토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소실되었지만, 예술을 영적 프로그램의 중심에 둔 오모토 운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6.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여러 언어로 출간된 『상념체』 에디션 모음

사회주의, 여성권, 보편 교육, 아일랜드와 인도의 민족주의와 신지학 운동의 활동가로 알려진 애니 베전트(1847-1933)의 유산은 대안 종교, 탈식민 정치, 아방가르드 예술 등 현대사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C. W. 리드비터(1854-1934)는 교회 성직자 직분을 사임하고 신지학에 일생을 바친 투시 능력자로, 헬레나 블라바츠키와 함께 인도로 여행하던 중 아디아르 해변에서 젊은 J. 크리슈나무르티를 발견합니다.

1901년 런던에서 처음 출간된 『상념체』는 ‘생각이 고유한 패턴과 형태를 가진 실체’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베전트와 동료 C.W. 리드비터는 투시 능력을 통해 음악, 감정, 색채 등이 ‘미묘한 영적-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소수의 예술가 그룹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긍정과 부정적 상념체를 설명하는 58점의 채색 삽화를 창작했습니다.

이 작은 책은 이후 바실리 칸딘스키, 피에트 몬드리안, 파울 클레, 힐마 아프 클린트 등 베전트의 강연을 들었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대 미술에서 영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1-7. 요셉 보이스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은 나를 좋아한다〉, 1974
16mm 필름을 변환한 디지털 비디오(흑백). 35분
디아재단, 뉴욕 제공

요셉 보이스(1921-1986)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타타르
사람들에게 구조된 일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작가는
이 일화를 동정심 많은 유목민들이 그를 비행기 잔해에서
꺼내어 동물의 지방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펠트 천으로
몸을 감싸주었다고 전하며 신화화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이스는 평생동안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선주민들의 치유법, 무속 의례, 민속 지식에
매료되게 됩니다.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은 나를 좋아한다〉는
1974년 뉴욕에서 있었던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구급차를 타고 르네
블록 갤러리로 이동한 보이스는 갤러리 안에서 코요테와
함께 3일을 보낸 후, 다시 같은 구급차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갑니다(따라서 미국 땅을 전혀 밟지 않은 것이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과 식민지 이전 시대 미국을
상징하는 영적 존재인 코요테와 함께 특정 기간을 지내는
퍼포먼스에서 보이스는 우리 행성을 공유하는 다른 종들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으로서 의례를 제안했습니다.

1-8. 백남준

〈TV 부처〉, 1989

청동 조각, TV 모니터, 캠코더. 105 × 140 × 70 cm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소장 및 제공

20세기 후반 가장 선구적인 예술가 중 한 명인 백남준(1932-2006)은 무속과 동아시아 철학에 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텔레비전부터 인터넷에 이르는 새로운 기술의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실험했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에서 부처는 폐쇄 회로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포착되어 텔레비전 화면에 반영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작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는 싸구려 텔레비전에 중독되어 나르시시즘이라는 악습에 굴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아를 초월하는 데 필요한 강렬한 자기 성찰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쌍둥이처럼 닮은 두 부처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되짚어 보며, 백남준이 〈TV 부처〉를 여러 버전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청동 부처상이 텔레비전 화면에 불 켜진 촛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세밀한 차이는 있지만, 이 작품들은 모두 물질적인 자아와 비물질적인 자아 간의 마주함(혹은 조화됨)을 다루며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뉴미디어 기술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해 왔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가능케 해왔을까요? 예술은 단지 오락에 불과할까요? 혹은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거나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까요?

1-9. 엠마 쿤츠

- (1) 〈무제〉, 연도 미상
갈색 모눈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91.5 × 91.5 cm(액자 93.5 × 93.5 × 5 cm)
- (2) 〈무제〉, 연도 미상
갈색 모눈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76 × 76 cm(액자 78.4 × 78.5 × 4.6 cm)
- (3) 〈무제〉, 연도 미상
갈색 모눈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75 × 75 cm(액자 77.3 × 77.3 × 4.3 cm)
- (4) 〈무제〉, 연도 미상
갈색 모눈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102 × 100 cm(액자 104 × 102.5 × 4.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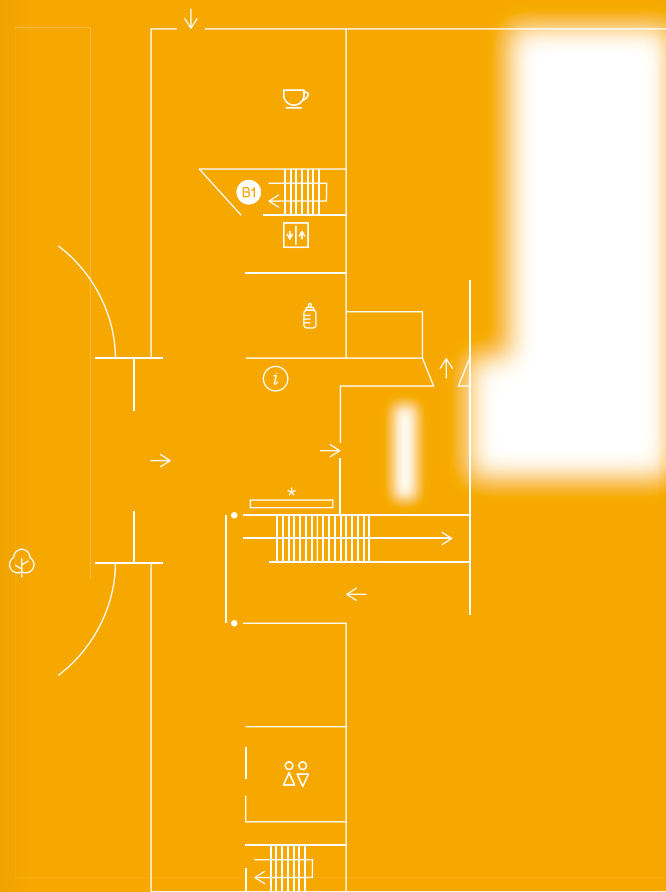
엠마쿤츠재단, 뷔렌로스 소장 및 제공

엠마 쿤츠(1892-1963)는 자신의 예지력을 담은 예술 활동을 총체적 영적 수행의 일부로 여긴 치유사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그녀는 스위스의 도심 외곽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도구이자 치유 수단으로 ‘에너지 장’을 묘사한 기하학적 드로잉 연작에 착수합니다. 모눈종이에 연필, 색연필, 분필을 사용해 그린 그림은 원, 삼각형, 직선, 십자와 같은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하며, 쿤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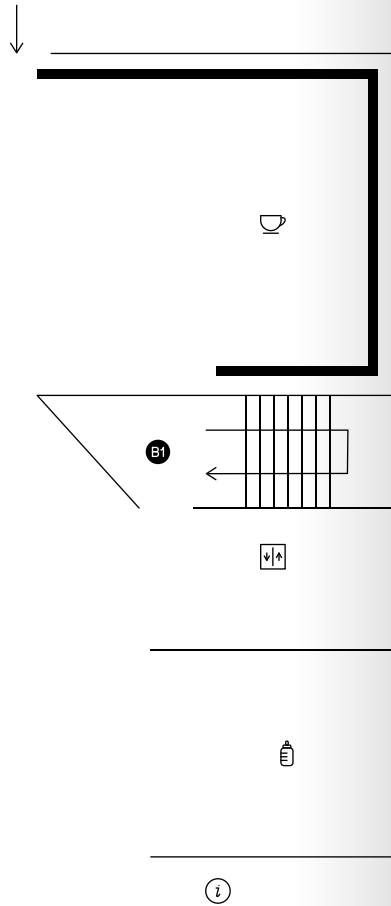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표현하고, 신탁의 예언적 메시지로 기능합니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추상화 네 점은 만다라를 연상시킵니다. 작가는 제목을 붙이지도 않고, 날짜나 의미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 작품들은 그녀의 철학적 신념과 회복적 수행에 관한 의지를 매혹적으로 도식화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공개된 작품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들은 이십일 세기를 위한 것이라 말했던 쿤츠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드로잉은 자연과 문화, 체현된 경험과 우주적 에너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2. 마녀와 영매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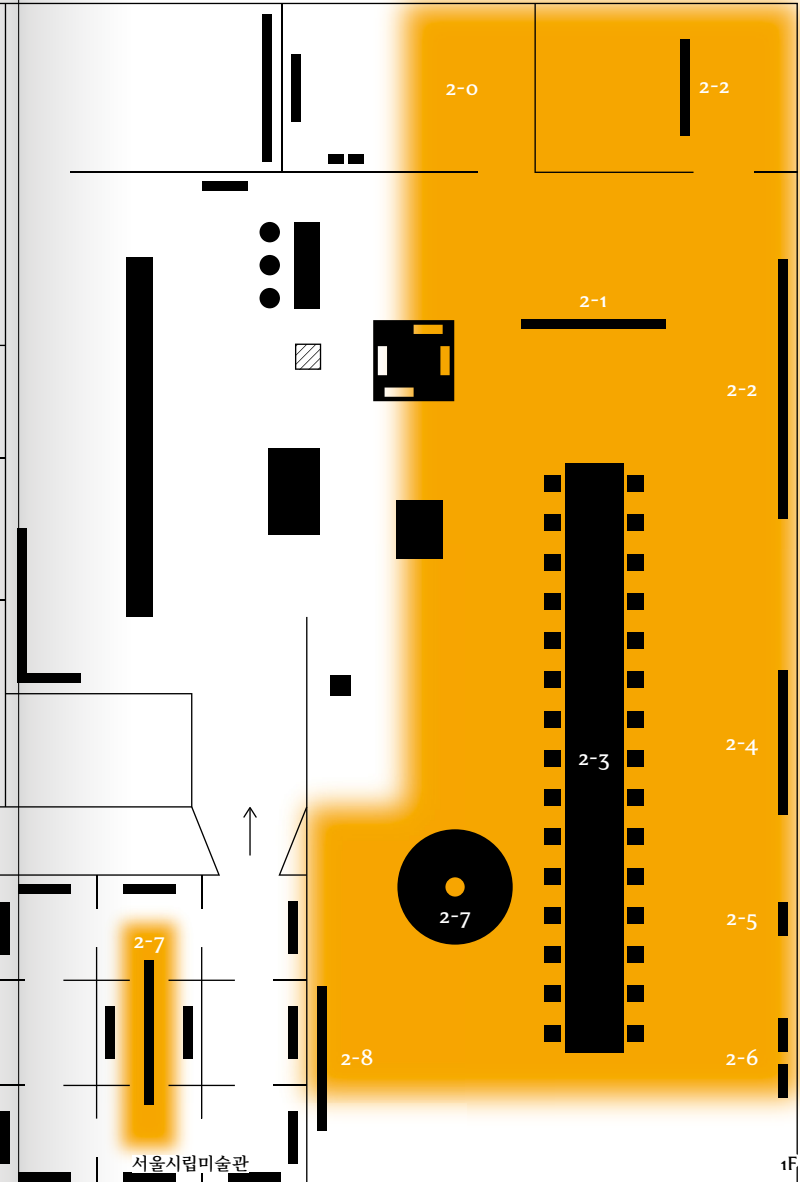
- 2-0. 안리 살라
 2-1. 뤼실 올랭프 오프
 2-2. 윤형민
 2-3. 수잔 트라이스터
 2-4. 마야 데렌
 2-5. 마이크 켈리
 2-6. 마누엘 마티유
 2-7. 요하나 헤드바
 2-8. 안젤라 수



i

*

서울시립미술관



2-0. 안리 살라

〈생각의 과잉〉, 2007

단채널 비디오(스테레오 사운드), 두릭스지에 인화된

흑백사진. 15분 10초, 각 40 × 30.5 cm(2점)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진 재제작 지원

작가, 마리안 굿맨 갤러리; 하우저앤워스; 뤼디거 쇼틀 갤러리,

뮌헨 및 상탈 크루젤 갤러리, 파리 제공

화가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는 생전에 잡지에서
오려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사진을 포함하여 수천
장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건축,’ ‘인물과 역사적 인물,’
‘사물,’ ‘모형,’ ‘회화,’ ‘조각,’ ‘노동자와 산업,’ ‘고통’이라는
범주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1974년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다른 예술가들에게 이 아카이브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안리 살라는 큐레이터들의
초대를 받아 이 아카이브를 탐구하게 됩니다.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있는” 이 특별한 자료를
살펴보던 안리 살라는 높은 건물 벽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는 한 남자의 흑백 사진 두 장을 발견합니다. 이
사진들이 ‘건축’으로 분류된 사실에 깜짝 놀란 살라는
작가가 왜 이것들을 ‘고통’이나 혹은 전혀 다른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답을 찾던 살라는
작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2-1. 뤼실 올랭프 오프

〈사이버마녀 선언문〉, 2019/2025

직물 인쇄. 300 × 400 cm

재제작: 에스에이에이(SAA)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작가 제공

뤼실 올랭프 오프는 영성, 신기술, 급진적 정치사상을
융합하여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모색합니다. 그녀의 실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윤리 체계가 식물, 동물, 심지어 우리 몸 안에 사는
박테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인간 너머의
존재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작가는 각기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마녀라고 정의하는 네 명의 친구들을 모아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의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이것을
원형으로 2년 뒤 완성된 〈사이버마녀 선언문〉은 공통된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녀 유권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상 별개로 여겨지는 영성, 정치, 기술
세 영역을 연결합니다. 활동가, 해커, 사상가들의 인용문을
담고 있는 선언문은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공존의 삶을
촉구합니다.

사이버마녀 선언문

뤼실 올랭프 오프

2019년 임볼크

시간 속의 매듭 하나로 세상이 변하고 기억이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도 미래도. *

회피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마주하고 불안이 아닌 결단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꿈꾸었던,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이 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읍시다. 우리는 자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옹호하는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 가이아, 어머니나 자매도 아닌, 탈젠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언어 너머의 힘입니다.

주인의 도구가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권한 부여를 꿈꾸게 했던 바로 그 기술들이 결국 모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원론의 미궁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카로스처럼 굴지 맙시다. 사이렌은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는 돌의 관능미와 나무의 부드러움에 심취해 트랜스휴머니즘적 오만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이아의 내장을 뒤지고, 굶거나, 모독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저장 담은 치명적인 연기를 하늘과 시간에 그만 내뿜고, 지구에서 누스피어(인류의 집단 의식)를 연결합시다.

우리 모두 “대형 메인프레임 파괴자”가 됩시다. 기술적 자율성을 외치고 모든 형태의 해방과 권한 부여를 주장합시다.

W.I.T.C.H., VNS 매트릭스, 가이네펑크, 리클레이밍, 테크노샤머니즘, 제노페미니즘, 하이퍼스티션, 아프로퓨처리즘, 조상미래주의 등에서 영감을 얻되, 어느 하나에만 전적으로 집착하지 맙시다.

아이러니한 헤르메스주의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는 말이 마법의 활성화 물질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사의 연금술을 종종 실천해봅시다.

우리의 말에는 허세가 거의 없습니다. 마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데이지 꽃을 어루만지는 데 그칩니다. 우리의 힘은 가정적이고 토속적입니다. 우리의 자매에는 우리가 마녀에서 권력의 여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DIY 실천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며, 불안정하고 덧없습니다.

에너지로 형태를 창조하고, 형태로 에너지를 인도하는 이 응용 과학을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조작하는 형태, 구조, 이미지는 때때로 우리 문화가 강요하는 한계를 벗어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 행동, 지향적 에너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내린 선택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실험적인 기원과 전통을 만들어 봅시다. 신성을 믿지 말고 신과 연결해 봅시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이 현실에 형태를 부여하고, 현실이 의식에 형태를 부여함을 이해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적이고 정치적인 의식에 참여합니다.
스마트폰과 타로 카드를 통해 영혼과 소통합니다.

DIY 기기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아스트랄체가 우주의 전파 영역을 여행하게 합니다.

조상의 방식과 발명된 방식을 섞어 세상의 다공성을 드러내 봅니다 — 우리의 세계, 더 이상 믿지 않는 신들, 자유로운 우주 창조론과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 존재들.

우리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육화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관계적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확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한 세계에서 하이브리드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몸—허브와 서버를 돌봅니다. 우리의 의식에 동시대의 일상적인 기술 장비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마법은 기술 우호적입니다.

말을 합니다. 몸짓을 합니다. 사물을 조작합니다. 원형적인 유물을 소환합니다. 이그레고르의 출현을 부릅니다.

덧없는 에너지의 공생을 찾아봅니다. 의지에 따라 의식을 바꾸는 이 기술을 연마합니다.

사이버마녀가 됩니다.

* 로즈마리 월드롭, 『아메리카 언어의 열쇠』

2-2. 윤형민

- (1) <블랙북>(슬라이드쇼), 2019
2대의 슬라이드 프로젝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리어 프로젝션 스크린. 17분 50초
- (2) <매직핸드>, 2013
엔티크 종이에 실크스크린 14점. 각 43 × 33 cm
(액자 53 × 43 × 4 cm)

작가 제공

윤형민의 작품은 글로벌한 세계에서 복잡하게 얽힌 언어, 문화, 사회, 이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수단으로서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녀의 작가적 실천은 종종 아카이브 연구에 기반하며, 특히 인쇄물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블랙북>(슬라이드쇼) 속 삽화들은 조선시대에 목판본으로 제작된 『삼강행실도』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1431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수차례 복각된 『삼강행실도』는 유교의 삼강(三綱), 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모아 만든 책입니다. 특히 작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열녀도’ 편을 중심으로, 현대의 풍자와 만화를 수집해 그녀만의 다크 유머와 해석으로 행실 규범이 체계화되고 감시되어 온 방식을 보여줍니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유명한 드로잉 <기도하는 손>(1508)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매직핸드>는 뒤러가 제작한 다른 책들에 나타나는 성인(聖人)의 손 동작과 마술 교본책에서 발췌한 문구를 함께 엮은 실크스크린 연작입니다. 마술 도구가 삭제된 텍스트, 배경이 사라진 손짓들은 맥락에서 벗어나 마치 신앙심 어린 행위나 비밀스러운 언어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소장된 비엔나의 알베르티나 미술관에서 한 때 사용했던 19세기 종이에 실크스크린한 이 작품은 중첩되고 가려진 역사를 드러내는 팔림프세스트(기록되어 있던 원문자 등을 씻어 지운 후에, 다른 내용을 그 위에 덮어 기록한 양피지 사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3. 수잔 트라이스터

〈헥센 5.0〉, 2023-2025

이노바 종이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8점.

각 42.1 × 29.8 cm

인쇄 및 설치: 에스에이에이(SAA)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주한영국문화원

재제작 지원

작가, 앤리 주다 파인 아트, 런던 및 P.P.O.W 갤러리,

뉴욕 제공

1990년대 초반부터 뉴미디어 분야의 선구자로 여겨진 수잔 트라이스터는 과학적 탐구의 최전선과 영적 계시 간의 침투 가능한 경계를 가로지르며 작업해 왔습니다. 종종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그녀의 프로젝트는 우리의 현재를 형성하고 우리가 막 이해하기 시작한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드러내고자 첨단 기술과 대안적 신념 체계 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헥센 5.0〉은 타로 카드의 형상을 바탕으로 그린 수채화 78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연금술의 도해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들은 과학, 예술, 영성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얹혀 있었던 전통을 다시 이어 나갑니다. 작품은 지구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체계적 위기에 대해, 다른 분야를 배제한 채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전제하며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트라이스터는 타로를 재해석하며, 모든 점술 체계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 기업과 국가 권력의 변화하는 구조, 환경 적응, SF의 혁신 등 셀 수 없이 많은 탐구 분야를 서로 연결 짓는 작가는 관객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성찰하고, 인간이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장려합니다.

2-4. 마야 데렌

〈마녀의 요람〉, 1944

16mm 필름을 변환한 디지털 영상. 13분

르부아 파리 및 마야 데렌을 대신하여 타비아 이토 제공

젊은 여성과 나이 든 남성이 손에 끈을 감아 정교한 무늬를 만듭니다. 그들의 모습은 여러 문화권에서 전승되어 온 고전적인 놀이 ‘실뜨기’를 연상시키며, 어딘가 마술적 힘을 지닌 듯합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만든 그물은 영화 속 인물들을 포위하고, 사로잡습니다.

이 미완성 단편 영화는 마야 데렌(1917-1961)이 20대 중반일 때 제작된 것으로, 폭발적인 창의력이 발휘되던 이 시기의 작업들은 추후 그녀를 미국 실험 영화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 등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을 미국에 소개한 뉴욕의 폐기 구겐하임 금세기 미술관에서 촬영된 〈마녀의 요람〉은 데렌의 혁신적인 기법과 아이티의 부두교부터 게슈탈트 심리학까지 폭넓은 분야에 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비스듬한 카메라 앵글, 역재생 푸티지, 거울 이미지, 박동하는 심장 모형 등을 활용해, 오컬트 의식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담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관한 관습적인 논리에 도전하는 이 작품은 예술에서의 초현실주의 운동, 난해한 지식의 형태, 아방가르드 영화 제작의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끌어냅니다. 특히, 마르셀 뒤샹이 남성 역할을 연기한 사실은 이 영화가 예술과 마법에 관련된 점을 분명히 합니다.

2-5. 마이크 켈리

〈엑토플라즘 #1, 정신의 아이, 〈폴터가이스트〉

중에서〉, 1979

〈엑토플라즘 #2, 외부 엑토플라즘 유령, 〈폴터가이스트〉

중에서〉, 1979

〈엑토플라즘 #3, 내부의 기형종, 〈폴터가이스트〉

중에서〉, 1979

〈엑토플라즘 #4, 엑토플라즘의 탄생, 〈폴터가이스트〉

중에서〉, 1979

매트 보드에 사진 인쇄 및 프레스 타입. 각 30 × 26 cm

(액자 33.97 × 31.75 × 4.45 cm)

마이크켈리예술재단, 로스앤젤레스 소장 및 제공

마이크 켈리(1954-2012)는 동시대 미국인의 삶에서 기억, 트라우마, 억압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대중문화와 고급 예술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컬트와 언캐니에 관한 끊임없는 흥미를 바탕으로 두고, 특히 이러한 요소들이 20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했던 행동 규범, 심리 구조, 신념 체계를 어떻게 뒤흔드는데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폴터가이스트〉 연작은 19세기 말 죽은 자의 이미지를 필름에 포착한다는 주장으로 인기를 얻었던 영성 사진의 역사에 대한 양가적인 헌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출된 자화상에서 작가는 영적 세계와 접촉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포착됩니다. 작가의 코, 입, 귀에서 흘러나오는 빛나는 물질은 ‘엑토플라즘’으로, 강령술을 행하는 영매의 몸에서 나오는 초자연적 물질입니다. 회의적인 유물론자의 눈에는 솜뭉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의 물리적 특징을 설명하는 일련의 짧은 글귀와 더불어 작품 이미지들은 사진과 다큐멘터리적 현실의 연관성을 활용합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깊은 진실을 폭로하고 숨겨진 힘을 포착할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 안에서 관객의 믿음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2-6. 마누엘 마티유

〈정체성 연구〉, 2022

캔버스에 아크릴, 분필, 목탄 및 테이프. 91.4 × 76.2 cm

아트하우스헨리베글린, 서울 소장. 작가, 필라 코리아스,
런던 및 아트하우스헨리베글린, 서울 제공

〈자동초상화-0322〉,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분필. 91.4 × 76.2 cm

개인 소장가, 서울 소장. 작가, 필라 코리아스, 런던 및 개인
소장가, 서울 제공

마누엘 마티유의 회화는 뒤섞여 흐르는 형상을 통해 다면적이고, 혼성적이며, 유동적인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소용돌이치는 안료, 꺾매진 절단면, 거친 질감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모양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형성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서 완전히 개인화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정체성 연구〉의 동요하는 화면 위에는 자수로 수놓은 검은색 조각들이 상처 혹은 봉합 자국처럼 캔버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절과 연속의 감각을 동시에 자아내며 상처와 치유를 동시에 암시하는 리듬 속으로 보는 이를 끌어들입니다. 〈자동초상화-0322〉에서 작가는 배경으로부터 인물을, 맥락으로부터 대상을 분리하여 자신을 흔적과 질감의 축적으로 재현합니다. 마티유는 그의

회화를 “인물과 풍경 사이를 교차하며, 그 경계를 끊임없이 뭉개는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2-7. 요하나 헤드바

- (1) <그 시계는 항상 틀린다(와미달)>, 2022
- (2) <그 시계는 항상 틀린다(외치는 자들의 분노)>, 2022
직물 인쇄. 각 502 × 390 cm
- (3) <그 시계는 항상 틀린다(다른 입)>, 2023
마우스 블론 유리, 3개의 큰 고리, 체인, 안료에 실리콘 오일,
카펫. 가변 크기

작가 및 티나갤러리, 런던 제공

요하나 헤드바는 마녀 가문에서 자란 작가, 예술가, 음악인입니다. 헤드바의 실천은 마법, 강령술, 점술을 신비로운 분노와 황홀경, 정치적 연대와 분열의 상태를 함께 엮어냅니다. 작가는 스스로가 “변칙적인 지식의 형태와 해방적 조건으로서 ‘둠(두려움)’을 위해 헌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두 점의 직물 작품은 18세기의 마법 주문서 『악마학과 마법 개요서』에 수록된 수채화를 재제작한 것으로, 이 책의 표지에 쓰인 “나를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길하게 다가오는 경고 문구가 됩니다. 독일어와 라틴어로 적힌 이 문서는 1075년 출간된 것으로 거짓 주장되며, 강령술사와 마녀들을 돕는다고 일컬어지는 여러 악마를 비롯해 다른 초자연적 존재들을 설명합니다.

뱀을 몸에 휘감은 채 참수된 머리를 들고 있는 ‘외치는 자들의 분노’ 형상은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한 신성한 여성의 복수를 상징합니다. 복수의 여신들은 고전적인 그리스 신화에 유래하지만, 악마 ‘와미달’의 출처는 모호합니다. 와미달이 취하는 자세는 중세 유럽 교회의 석조 부분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실라나히그(나체 여성 조각상으로 과장된 외음부를 가진 것이 특징)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악마를 출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작가의 재현 방식은 여러 역사에 관한 유물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시계는 항상 틀린다(다른 입)>은 시간에 관련된 키네틱 조각입니다. 외계인의 두개골과 실라나히그의 과장된 형체를 연상시키는 둥근 유리관에 담긴 검은 점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설치입니다. 이 액체는 전시의 시간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아래에 있는 카펫을 망가트립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시간이 약이다”라는 식의 진부한 통념, 특히 시간이 선형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준다는 믿음에 대한 부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련의 연작을 이루는 세 작품은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기존의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인간의 환상에 관한 논쟁으로 작동합니다.

2-8. 안젤라 수

〈라크리마〉, 2021

단채널 비디오. 19분 48초

제1회 헬싱키비엔날레(2021) 연계 프로그램 《안녕, 한번 더
고마워 물고기》커미션

작가 및 블라인드스팟 갤러리, 홍콩 제공

픽션과 다큐멘터리, 현실과 환상을 함께 엮어내는 안젤라 수의 비디오 에세이는 고통을 견디고, 변형되며, 나아가 불의를 증언하는 신체의 능력에 관해 성찰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 개인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구성된 서사를 드러냅니다.

〈라크리마〉는 표면상으로 투시 능력자이자 양자 물리학자이며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니나 팔라디노의 삶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이야기는 예술가 ‘안젤라 수’가 전시를 앞두고 사라진 사건, 세계 간 전자기적 포털의 구축, 작품의 제목이면서 안개에 휩싸인 신비로운 섬 ‘라크리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미스터리한 일들을 다양하게 직조하여 서술합니다.

조르주 멜리에스, 한스 리히터, 루이스 부뉴엘, 안무가 버스비 버클리 등 다양한 영화감독들의 영상 클립을 결합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불안정한 응대들, 비밀스러운 패턴들, 심령적 메시지들, 꿈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안적 현실을 구축합니다. 작가는 폭력과 불의를 비추는 낯섦을

경도록 관객을 초대하여, 일상적인 인식 너머의 세계를 향해 “운명의 도약”을 제시합니다.

- 3-0. 요아킴 뢰스터
 3-1. 비올렛 e a
 3-2. 타마르 귀마래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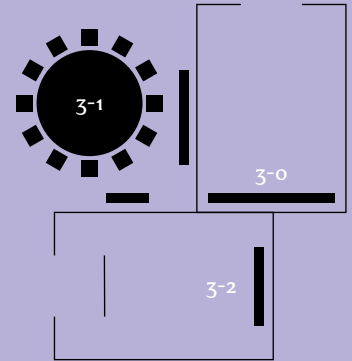
3. 트랜스

①

*

○○
△▽

서울시립미술관



3-0. 요아킴 쿼스터

〈타란티즘〉, 2007

단채널 비디오. 6분 30초

덴마크예술재단 설치 지원

작가 및 안뫼, 브뤼셀 제공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며, 사이키델릭한 이야기들에 주목하는 요아킴 쿼스터는 인간의 신체와 마음이 지닌 현실적·상상적 한계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사진 연작, 책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작가는 억압된 역사를 공동의 기억 속으로 불러냅니다.

늑대거미나 타란툴라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타란티즘’은 경련을 포함한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데, 타란텔라라고 불리는 격정적인 춤을 취야만 완화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중세 시대 남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러한 믿음은 20세기 중반까지 해당 지역 전반에 퍼져 있었으며, 이후 타란텔라는 연인들이 추는 양식화된 춤으로 발전했습니다.

쿼스터는 이 영화를 제작하며 무용수들에게 이 ‘치유의 춤’을 추도록 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경시되었거나 억압된 신체의 가능성을 성찰하고자 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빙의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 작품 〈타란티즘〉은 억압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말을 거는 통로로서 몸을 주목하고, 병리학, 의례, 황홀한 인식 사이의 경계를 뒤흔듭니다.

3-1. 비올렛 e a

〈달이 머무는 곳은 직사각형이다〉, 2016-2018

c-프린트. 각 53 × 35.3 cm(5점); 각 35.3 × 53 cm(3점)

사진: 플로리앙 푸셰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리지아 클라크 비초 조각의 비공식 사본—꽃, 모든 상황에 대한 기념비, 기계(하드보드지), 판큐비즘(하드보드지)〉, 2014-2025

하드보드지 및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초 복제본(4점).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리지아 클라크 비초 조각의 비공식 사본—크랩, 스페이스 버드, 반대편 2, 환상적인 건축 비초〉, 2014-2025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초 복제본(4점).

가변 크기

재제작: 아트랩반(조재홍, 구재희)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알베르 슈스비에 병원에서 열린 예술 워크숍(2015.10.09)

“비초 세션”〉, 2015/2025

단채널 비디오. 5분

편집: 비올렛 e a. 사진: 위르뱅 곤잘레스, 오스왈드 라이히,

루이 쉬코, 실비 트랑 외 워크숍 참여자들

작가 제공

1960년대 초, 리지아 클라크는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알루미늄판 조각 연작을 소개하였습니다. ‘비초(생물)’라고 이름 붙인 이 작품들은 살아 있고, 움직이며, 관절이 있는 존재를 연상시킵니다. 2014년, 비올렛 e a는 이 작품의 복제본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비공식 사본’이라 부릅니다. 이 복제본들은 관객이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 클라크가 원작에서 의도했던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제안합니다(현재 클라크의 원작은 보존을 위해 엄격한 조건 안에서만 만져볼 수 있습니다).

비올렛 e a는 이 ‘비공식 사본’을 임상 정신 의학 등의 맥락에서 활용하며, 클라크의 감각 치료 실천과 공명하는 동시에 현대 미술의 가장자리에서 오랜 시간 체현되어 온 참여적인 치유의 흐름을 계승합니다. 클라크의 비초를 다시 만든 이 작품들은 오마주가 아닌, 물질을 조작하여 존재를 호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접고, 펼치고, 다시 접는 행위는 명상적 몸짓이 되고, 이는 원본과 사본, 자아와 타자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손의 트랜스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영매와 같은 작가 비올렛 e a는 부재하는 것을 불러냅니다.

3-2. 타마르 귀마레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제르바시오 장군의 가족〉, 2013/2014

16mm 필름을 변환한 단채널 비디오(흑백, 사운드). 16분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백과사전식 궁전》과 제31회

상파울로비엔날레 《How to (...) things that don't exist》커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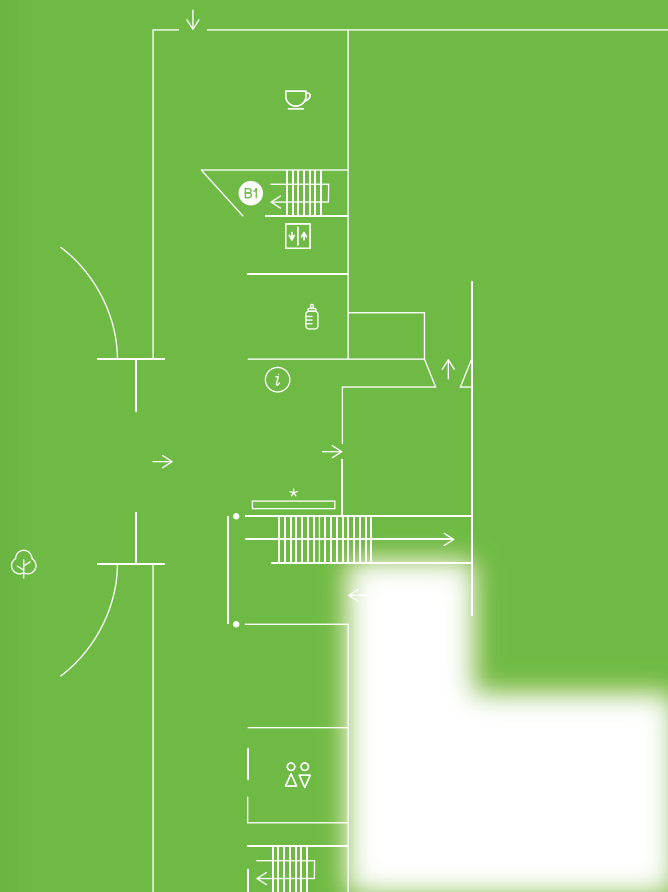
작가; 포르테 달로이아 & 가브리엘, 상파울루 및 엘렌 드
브라이네 프로젝트, 암스테르담 제공

〈제르바시오 장군의 가족〉은 브라질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고이아스 주의 작은 마을인 팔멜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2,000명의 주민 중 절반이 영매인 이 마을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교사로 일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심령 치료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영혼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가르침을 주며, 물질적 세계를 변형시키는 존재로 바라보며, 19세기 심령술사 알랑 카르텍이 차용한 프란츠 메스머의 ‘동물 자력론’의 유산인 ‘자석 체인’ 치료법을 실천합니다. 이 체인은 정신 질병을 포함한 각종 치료에서 사용되는데, 이 치료법을 사용하는 요양 병원은 1929년 제르바시오 장군이 건립한 팔멜로 재단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팔멜로의 한 영매가 브라질의 상공 위에 떠 있는 아스트랄 도시 스무 곳을 목록화한 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도시들은 지상의 도시들과 다를 바 없지만, 최근 사망한 이들이 배우고 일을 하는 더없이 완벽한

곳이라고 합니다. 팔멜로 마을의 장면들은 가깝고 먼 여러 브라질 도시들의 건축적 장면들과 교차 편집됩니다. 이와 같은 몽타주는 마치 엑토플라즘처럼 영매의 몸에 투영된 도시들을 시사하며, 이 도시들은 주지사, 장관, 수많은 행정가들이 무한한 지혜의 선량한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눈부신 근대성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들을 도시적 환상이 아니라, 표면적인 시야 밖에서 정신적 구호를 향한 공동의 노력, 즉 급진적인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징후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실천적 우주론



실천적 우주론은 살아내고, 적용하여, 내면화된 우주에 관한 이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색이 아니라, 의식, 건축, 농업, 사회 조직, 예술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작가들은 함께 얹혀 있는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며 실천적 우주론에 연결됩니다. 우주론은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실천이며, 즉 일상의 시학입니다.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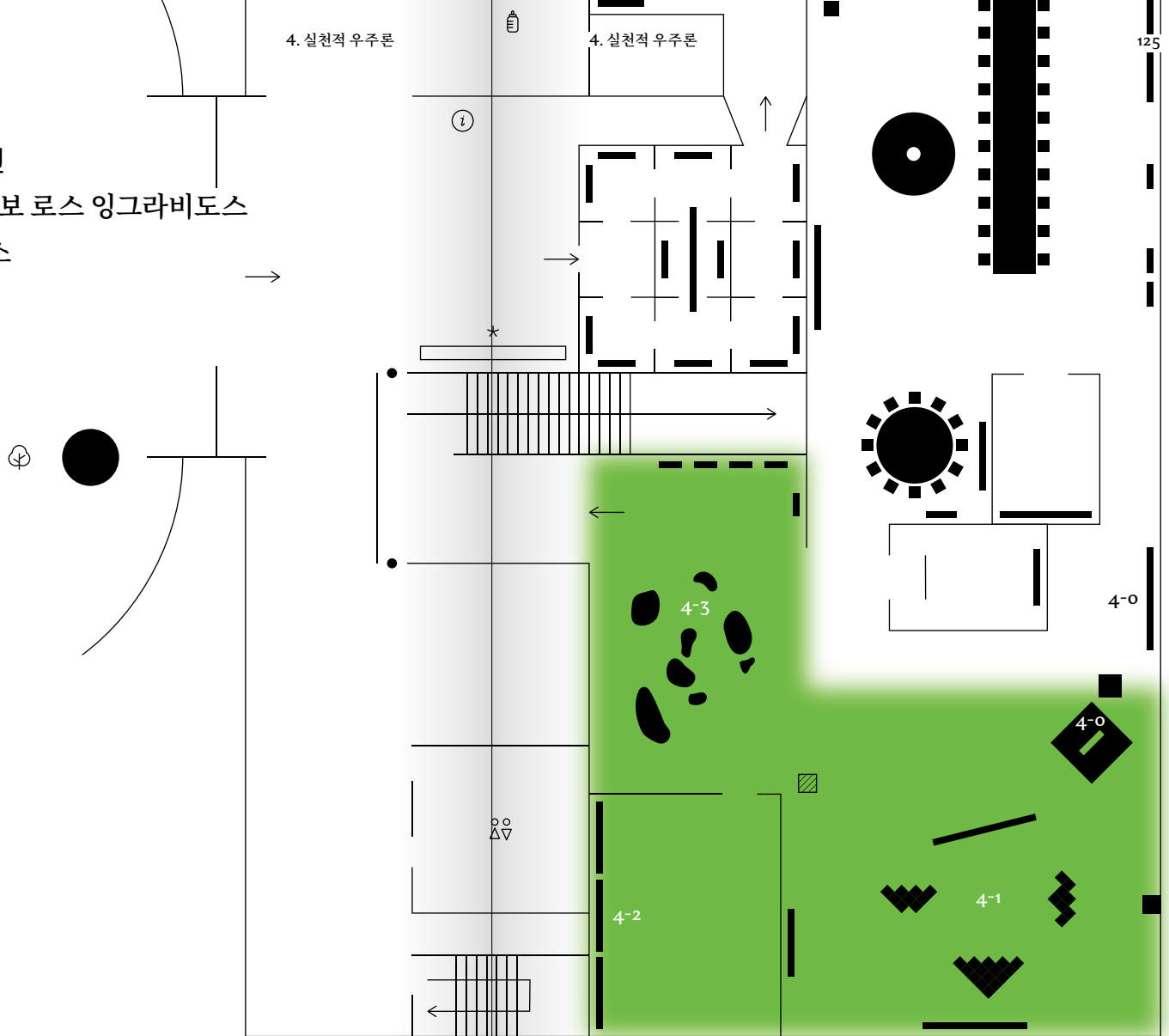
우리는 폭력을 향한 인류의 경향, 다른 종에 대한 착취, 우릴 지속하게 해주는 환경에 대한 자멸적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적 질서와의 어긋남, 즉 우리의 몸과 마음에 퍼져있는 광기를 불러내는 불협화음이라는 표현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에서부터 대안적 치유에 이르기까지 구제와 재조정의 형태들을 제시합니다. 자만에 빠진 인류는 가장 미시적인 규모부터 가장 거시적인 규모까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서사들을 재평가하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 모색하도록 촉구합니다.

- 4-0. 안민정
 4-1. 인주 첸
 4-2. 콜렉티보 로스 잉그라비도스
 4-3. 뽁 포 소

4. 실천적 우주론

4. 실천적 우주론



4-0. 안민정

〈어머니의 손과 치유의 바람에 관한 연구; 어머니 손 사용
설명서〉, 2013/2025

디지털 프린트. 210 × 111.8 cm; 29.7 × 42 cm(설명서)

〈육인가족도(六人家族圖): 어머니는 명절에 모인 가족들에게
그동안 키우신 알로에를 나누어 주셨다〉, 2007

디지털 프린트. 423 × 111.8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작가 제공

안민정은 청사진이나 기술 도면을 연상시키는 드로잉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입력하고 트레이싱지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언뜻 수학 공식과 주석이 가득한 도표나 다이어그램처럼 보이는 작품은 소프트웨어 설명서처럼 엄정한 미학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은 일상의 내밀한 순간, 기억, 감정, 정체성 등 매우 개인적인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작업은 과학적 정밀함이 주는 객관성과 주관적인 경험을 나란히 놓으며, 마치 현대의 종교처럼 여겨지는 기술과 계산의 시각 언어를 빌어 자신과 주변 세계를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작들은 생명체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에 관한 탐구로서,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인가족도(六人家族圖)〉에서는 어머니 머리 위에 그려진 후광이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과 아우라’와 그녀의 가족이 누리는 ‘사랑의 빛’을 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4-1. 인주 첸

〈외계 행성 평가〉, 2016

3개의 단채널 비디오 설치, 28개의 사진 액자와 다이어그램,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샤스타 산으로부터 온 편지,
36개의 철판과 크리스탈. 20분(반복 재생); 8분
27초(스테레오 사운드, HD); 3분 35초. 400 × 219 cm
(다이어그램); 21.59 × 27.94 cm(편지); 각 48 × 48
× 0.9 cm(철판); 가변 크기(크리스탈)
철판 재제작: 에리카 콕스. 컬러강판 동국 CM 협찬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 재제작 지원
작가 제공

그동안 받아들여진 지혜와 달리, 수천 년 전 잃어버린
레무리아가 태평양으로 가라앉았을 때 일부 주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제기된 잃어버린 대륙에
관한 이론이 비록 과학계에서는 외면당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의 여러 목격 사례는 대안적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그것은 레무리아에 거주하던 외계 생명체들이
북캘리포니아의 활화산 아래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외계 행성 평가〉는 생존한 레무리아인들이
인간 공동체에 침투하고, 그들의 고향 행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다루며, 예술과 사회의 격동적인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설치
작품은 두 문명 모두에게 혼란의 시기였던 1960년대를

주목합니다. 당시 지구인들이 전 지구적 정치 격변을
겪는 동안, 레무리아인들은 그들의 통신 채널을 방해할
만큼 극심한 기상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지구에
파견된 그들의 대표자들은 우주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형식의 예술품을 제작해 별
너머로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점성술, 신비주의, 신성 기하학에 착안한 〈외계
행성 평가〉는 외계 지성의 시선을 빌려 인간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제도적 폭력을 일종의 우주적 불협화음으로
재구성합니다. 멀리 있는 타자의 눈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는 이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은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
삶의 파괴적 충동과 그것이 낳은 동시대의 위기를 성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4-2. 콜렉티보 로스 잉그라비도스

〈황홀 속의 대지〉, 2019-2022

3채널 비디오, 사운드. 40분

작가 제공

여기, 격렬한 황홀경에 빠진 춤추는 육체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의 서곡, 신들의 기도, 간헐적 순간의 봉헌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서로 모이고, 떨어지거나 굴복하며, 내리는 비, 메소아메리카의 바람, 여신의 숨결, 나뭇가지의 떨림, 타악기 소리 같은 숲의 마법과 황홀경 아래에 반짝입니다. 작품의 시청각적 다이어그램은 우리를 영감어리고 역동적인 숨결로 인도하고, 뱀 모양의 창이 우리를 낚아챱니다. 우리를 향해 동요하는 깃털은 메소아메리카의 타악기 테포나즈틀리의 소리이자 울림입니다. 뱀처럼 생겨 춤을 추며 튀어 오르는 잔가지, 나무의 몸통, 숲의 나무들. 지구의 잿더미에서 온 역동적이고 시청각적인 시리얼리즘. 이것은 황홀경에 빠진 지구에 관한 작품입니다. 구스타보 난다야파와 라미로 R. 두아르테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작가 제공)

4-3. 윈 포 소

〈증발하는 심포니〉, 2025

3D 프린터로 출력한 돌과 열 전도계, 온도 센서, 계전기, 스테인레스스틸 철판, 롤러 펌프, 배수관, 물. 가변 크기 스틸 패널 재제작: 에리카 콕스. 3D 프린팅 돌 제작: 팸랩 홍콩. 기술 협력: 알지비랩(김유석). 컬러강판 동국 CM 협찬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작가 및 블라인드스팟갤러리, 홍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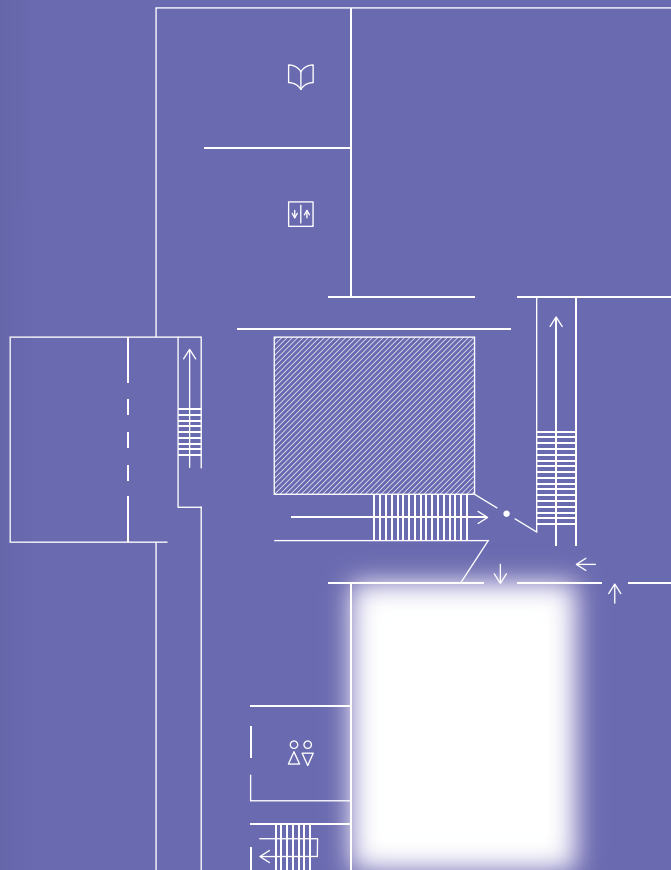
〈증발하는 심포니〉는 물이 증기로 변하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순간을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작품입니다. 청각과 시각의 상호 작용을 면밀하게 구성하는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의 순환과 보이지 않는 리듬을 명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설치된 작품의 중심에는 다양한 높이로 바닥에서 띄워진 스테인리스스틸 판 위에 놓인 돌들이 조용하고 절제된 풍경을 연출합니다. 물방울이 각각의 돌 위로 떨어지는 순간, 부드러운 타악기 소리와 함께 즉시 증발합니다. 이 미세한 반복은 사라져가는 물질을 ‘조울’하고, 섬세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그 소리는 희미하지만 공간 전체에 부드럽게 울려 퍼집니다.

〈증발하는 심포니〉는 열과 물, 물질을 연결하여 경이로운 순간을 창조합니다.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관한 믿음, 그리고 원소 상호작용이 만드는 변용의 힘을 반영합니다. 또한 시간과 무상함에 관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단 1초도 되지 않아 증발하는 물방울은 본질의 임시성을 상기시켜 주며 덧없이 사라집니다. 관객은 작품을 알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깊이 들으며, 가까이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증발하는 심포니>는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가장 작은 움직임이 지구와의 감각적 연결을 위한 교향곡으로 전환합니다.

5.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며, 환자를 씻기고, 귀신을 쫓아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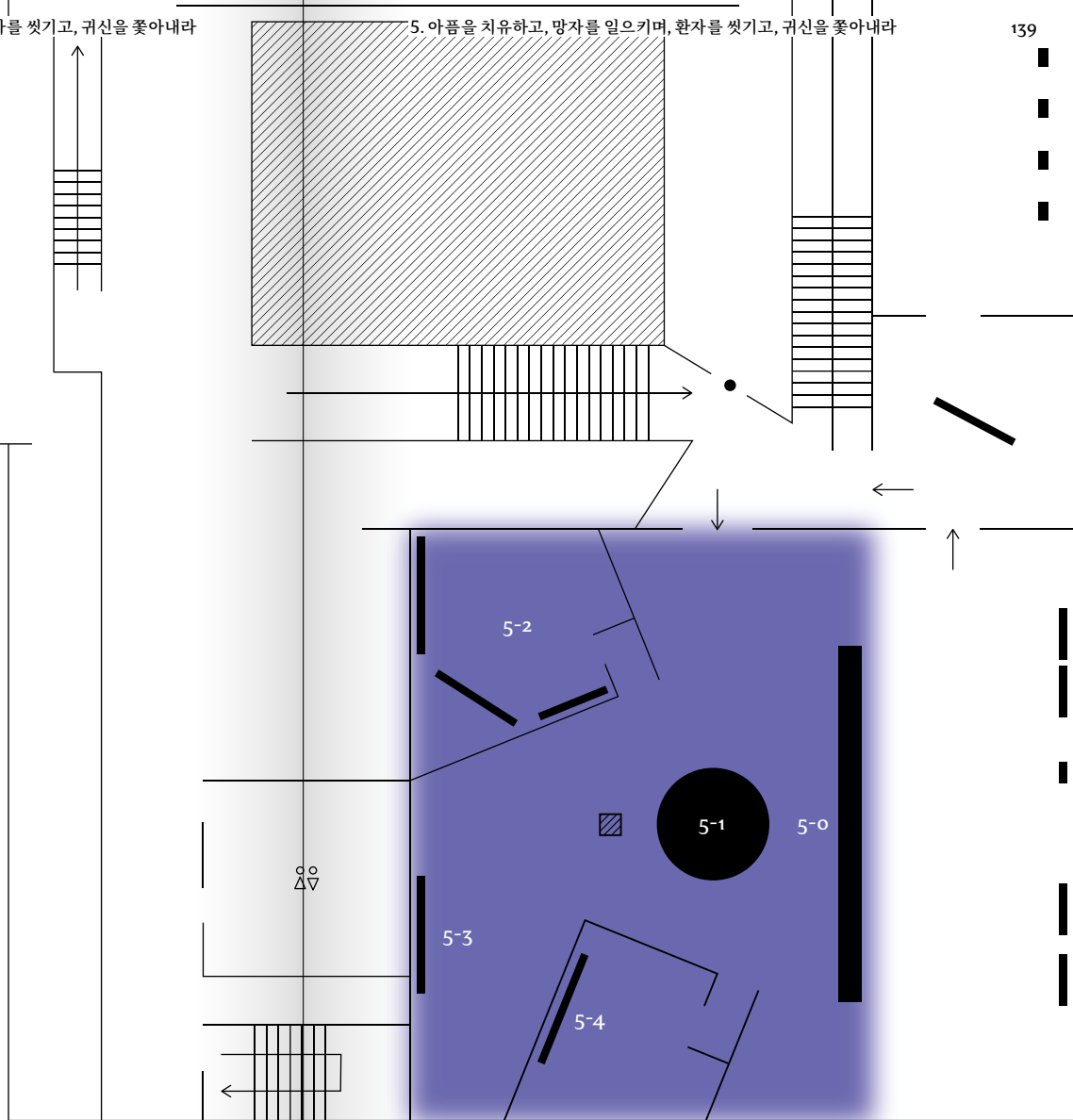


우리의 이웃은 치유사입니다. 찬장을 약병으로 가득 채운 이들이 아닌, 주파수와 면역 체계, 정신적 잔여물을 다루는 유형의 치유사입니다. 이곳에서 치유는 치료나 기적이 아닌, 재조정을 말합니다.

예술품도 영혼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웃 치유사와 유명 예술가 사이에는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크리스탈이 진동을 통해 몸을 치유하는 것을 믿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예술이 감각을 통해 영혼을 고양한다는 주장 역시 회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에는 모두 무기물에 깃든 신비한 잠재성에 관한 믿음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그 믿음을 이용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쪽도 닫힌 마음 너머로는 닿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 5-0. 추억과 예술품
- 5-1. 과달루페 마라비아
- 5-2. 샤나 몰튼
- 5-3. 히와 케이
- 5-4. 카라 디테 한센



5-0. 주역과 예술품

〈인간의 영혼을 위한 공학: 젠틀 윈드 프로젝트에서 주역까지〉,

1983-2025

80여 점의 치료 도구.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주역과 예술품은 점술, 웰빙 산업, 반제도적 상상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활동하는 반신화적 콜렉티브입니다. 1993년 ‘젠틀 윈드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이 조직은 법적 문제로 해산되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의 이름으로 다시 재결성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관습적인 의미의 예술품이 아닌 ‘치유 도구’를 제작합니다.

전통 중의학, 전자기학, 입자 물리학, 색채 이론, 동종요법의 단편들을 바탕으로, 형형색색의 막대, 장치, 콘솔, 카드들은 신체의 전자기장을 회복하고 재정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적 경험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으며, 몸은 감각 작용을 통해 영혼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들의 치유 활동에서 『주역』은 신탁이자 사유의 틀이 됩니다. 이들은 트라우마와 회복을 의학적 사건이 아닌 더 큰 얽힘 속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재구성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첨단기술은 마법과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에게 치유는 과학만큼이나 믿음의 문제로서 제시됩니다.

5-1. 과달루페 마라비야

〈질병 투척기 #17〉, 2021

징, 철, 나무, 면, 접착제 혼합물, 플라스틱, 수세미, 그리고 작가의 이주 경로를 되짚어보는 의식에서 수집된 물건들.

251 × 244 × 140 cm

작가 및 P.P.O.W 갤러리, 뉴욕 제공

과달루페 마라비야는 1984년 고향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내전을 피해 미성년의 나이에 홀로 모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작가는 뉴욕에서 예술을 공부하던 중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외된 공동체를 위해 치유와 의식의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가이자 활동가로서 마라비야가 고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배경이 됩니다.

수세미, 뱀의 머리와 심장 해부 모형, 흑요석, 6개의 징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질병 투척기 #17〉은 작가가 제의를 진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도록 고안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라비야가 어린 시절 이주의 경험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애니미즘적 속성을 지닌 것들을 골라낸 물건들을 결합하여 완성됩니다.

작가는 종종 다른 치유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 관객을 위한 사운드 의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사적인 의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병 투척기 #17〉은 유해한 사회적, 영적, 물리적 환경을

살아가며 병들게 된 이들을 위한 총체적 치유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2. 샤나 몰튼

〈속삭이는 소나무 10〉, 2018

비디오 설치. 35분 51초.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샤나 몰튼의 작품은 우리의 집단적인 욕망을 기분 좋게 드러내어, 셀프케어 문화와 뉴에이지 치유의 허망한 약속과 실망감을 다룹니다. 부드러운 유머를 바탕에 둔 비판적 시선은 나이 듦, 고립, 신자유주의 사회가 개인, 특히 여성에게 압력을 가하는 획일화된 신체와 정신적 완벽함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속삭이는 소나무〉는 몰튼이 웰빙 산업의 여러 측면에 연루되어 쾌활하면서도 불안감을 지닌 인물인 ‘신시아’로 등장하는 비디오 연작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해 온 이 프로젝트의 열 번째 시리즈인 이번 영상에서, 주인공은 결국 우주적 차원의 고통인 것으로 드러나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시도합니다. 몰튼은 신시아를 “죽었다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문제를 극복하고, 초월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루프 속에 갇힌” 인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신시아의 겉보기에 일상적인 갈등은 세속적이고 세분화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깊은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5-3. 히와 케이

〈당신은 무엇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2025

단채널 비디오. 22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히와 케이의 작업은 종종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에게서 들은 토착민적 역사나 일화에서 출발하며, 세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예술이 상품화되고, 이로 인해 예술가(및 기타 사회적 기능)가 전문화되는 상황에 불일치되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의 작가적 실천은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것을 강조하며, 원리보다는 일상의 경험을 취하며 전개됩니다.

어느 날 작가는 허리 아래쪽에서 “날카롭고, 깊고, 오래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개복 수술로만 제거할 수 있는 신장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현대 의료 산업의 상업적 환경을 피하고 싶었던 작가는 지역의 전통 치료사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일화는 “전쟁에서의 침공처럼 쿠르디스탄에 유입된” 서구 의학의 기업적 이익 논리로 인해 선주민 지식과 전통 의료가 소외되는 현실에 관한 문제의식을 환기합니다.

5-4. 카라 디테 한센

〈준보석〉, 2024

16mm 필름을 변환한 단채널 비디오(스테레오 사운드).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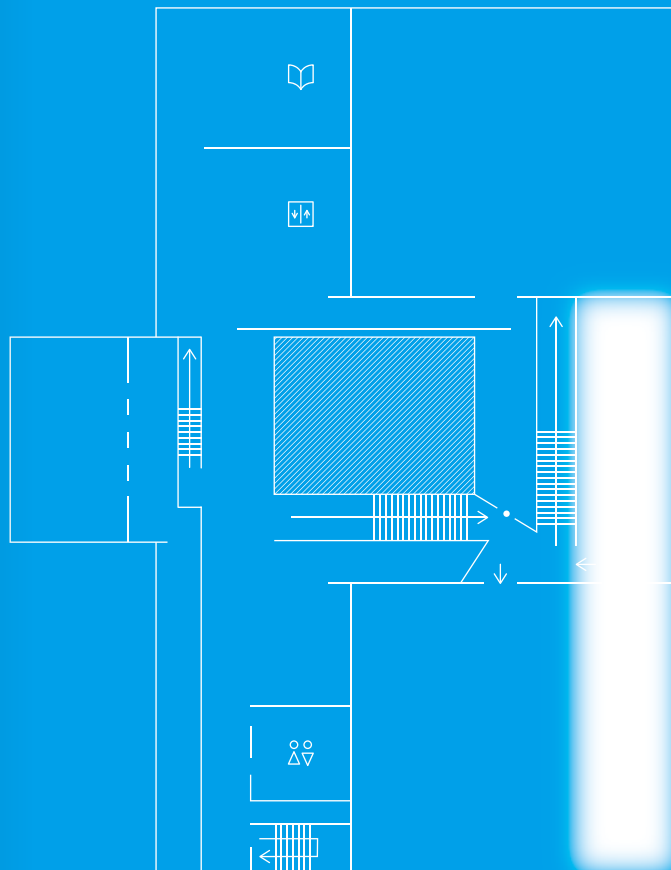
작가 제공

〈준보석〉은 물질로 이루어진 외면과, 의식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내면 사이의 경계를 뒤흔드는 영화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영적 실천이었다가 은퇴한 어머니의 “분절된 초상”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모았던 오브제들로 장면들을 구성합니다. 크리스탈, 건강 보조제, 생활 소품 등은 부적 혹은 치유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각각에는 정서적이고 영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습관은 그녀의 기억 상실을 보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랑, 유머, 희망을 담아 완성된 작품 〈준보석〉은 기억, 치유, 유한한 삶에 관한 정동을 그려냅니다.

6. 테크네



고대 그리스어로 ‘테크네’는 현실을 재구성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 또는 일상생활에 지식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그리스어에서 테크네는 ‘예술’ 또는 ‘공예’를 의미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핵심 제안은 영적 수행 역시 테크네, 즉 기술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수학, 음악, 컴퓨팅, 안무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각 작품은 신체와 시스템, 신화와 측정, 의식과 반복 사이의 다양한 접점을 드러냅니다. 영적 깨달음은 응용과학과 대척되는 것이 아닌, 보완의 수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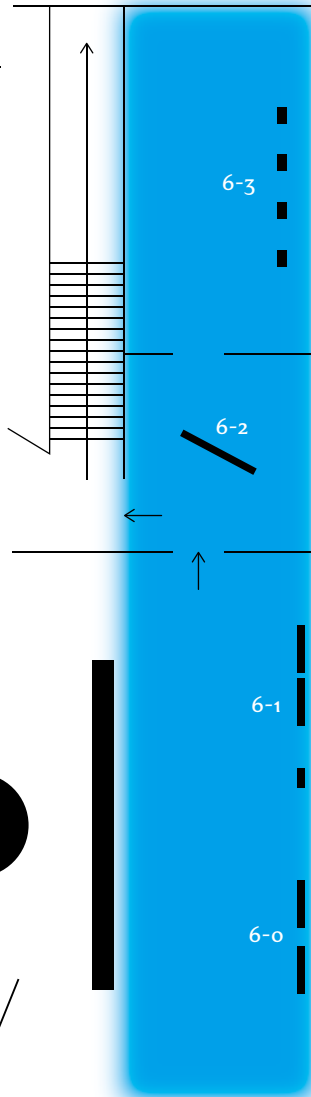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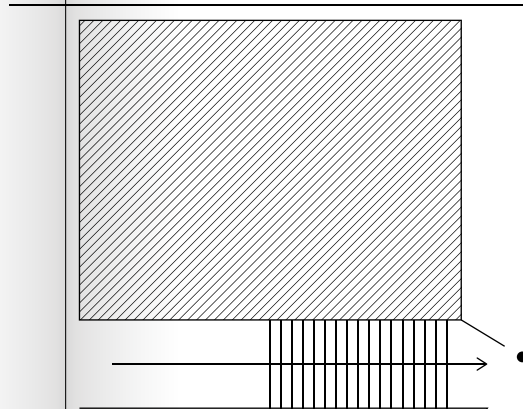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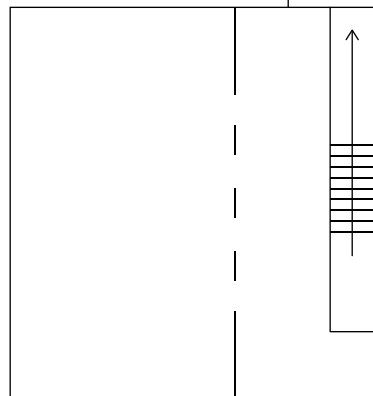
이 장은 과학의 발전이 영적 경험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핵심은 새로운 이해의 도구들이 우리를 인간 너머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드러내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6-0. 하룬 미르자

6-1. 크레이 첸

6-2. 슈 차웨이

6-3. 권병준



6-o. 하룬 미르자

〈동굴 속의 계시 삽화(태양전지 회로 구성 29)〉, 2023

〈올리비아 아레발로의 에너지볼 삽화(태양전지 회로 구성 30)〉, 2024

태양전지, 폴리우레탄 수지, 구리 스트립, 전선, 자철선, LED
테이프, 브리슈나 아민 칸의 미니어처 그림, 유리에 전선,
양극처리된 알루미늄. 146.8 × 146.8 × 7.6 cm

주한영국문화원 운송 지원

작가, 리슨 갤러리, 런던; 막스 괴리츠, 뮌헨 및 스카이 더
배스하우스, 도쿄 제공

〈태양전지 회로 구성〉연작은 하룬 미르자의 의뢰로
브리슈나 아민 칸이 그린 전통 세밀화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미르자가 묘사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장면들을
재현한 전통화는 태양전지와 구리 스트립의 결합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신앙적인 예술품과 새로운
기술에 깃든 전통적 역사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미르자의 그림 상단에 연결된 LED 할로는 구리
스트립으로 구성된 에너지 회로를 통해 태양전지와
연결되어, 주변의 조도에 따라 빛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미르자는 유리 표면 위에 반투명 필름과 폴리우레탄 수지를
활용하여 액체처럼 흐르는 시각 효과를 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동굴 속의 계시 삽화(태양전지 회로 구성 29)〉의 중앙에 있는 그림은 감각 저하로 인해 체내에서
디메틸트립타민(DMT)이 방출된 후의 의식 상태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DMT는 일종의 신경전달물질로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신체가 자체적으로 방출하는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뇌의 시각피질에 강한 영향을 미쳐 시각적
경험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고, 때로는 무속 의식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6-1. 크레이 첸

〈오페라 그린〉, 2020
2채널 비디오. 36분 30초

〈이미지의 광학〉, 2020
홀로그래픽 회전 LED 디스플레이. 3분 38초(반복재생)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송 지원
작가 제공

크레이 첸의 안무 영상은 복장에 대한 규범부터 신체의 동작들이 반복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굳어지는 과정까지 일상의 암호화된 사회적 규칙들을 파헤칩니다. 작품 전반에는 통제와 순응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긴장감이 관통하며 때로 그 균형은 부조리함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페라 그린〉은 두 개의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상 작품으로, 조주(중국 출신의 한족)의 거리극에서 표현하는 전형적인 인물인 선비와 무사를 담아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조주 극단을 이끄는 닉 셴은 양식적 표현과 사실적 연기 사이를 오가며 인물, 배우, 원형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합니다. 에밀리 코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더해진 작품은 전통을 향한 헌사는 물론이고, 정체성이 어떻게 반복되고, 계승되며, 분열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광학〉은 〈오페라 그린〉의 편집 장면을 재구성해 이미지가 LED 디스플레이 위에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효과를 연출합니다. 영상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장면들은 즉흥적으로 포착된 파편처럼 유령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며, 관객은 영상에서 특정 요소가 기술을 통해 생략되거나 인식되는 과정을 인지하며, 정체성과 서사가 형성되는 방식을 되짚게 됩니다.

6-2. 슈 차웨이

〈영혼 기록〉, 2016

2채널 비디오. 9분 45초

작가 제공

슈 차웨이의 작업은 종종 대만 해협의 작은 섬에 대한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섬은 ‘마샬 티에 지아(鐵甲元帥)’라는 지역 수호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약 반세기 전 본거지인 장시성의 사원이 문화대혁명을 겪는 동안 파괴되자, 이 개구리 신은 마츠섬으로 옮겨왔습니다.

〈영혼 기록〉은 수호신인 장군님과 나눈 특별한 대화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섬사람들은 신이 머무는 가마를 흔드는 의식을 치르며 신과 소통합니다. 그들은 가마가 제단에 부딪히는 것을 자신들의 질문에 관한 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촬영 스튜디오로 장군님을 불러내 프로젝트의 취지를 전하고, 그가 추방된 사원을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신의 묘사에 기초해 디지털로 재구성한 사원과 의식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나뉜 두 채널 영상으로 소개됩니다. 작가는 그린 스크린, 보이스 오버, 이중 서사 등 동시대 미디어 기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변위를 읽고, 어떻게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연출되며, 신화화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에서 테크네는 환영임을 감추지 않지만, 스토리텔링 과정을 드러내는 영화적 장치, 즉 마법적 기술-예술입니다.

6-3. 권병준

〈중심에서 피어나는; 잠재태의 황금꽃〉, 2025

혼합 매체(모터, 전자석, 알루미늄 프로파일, 컨트롤보드, 3D
프린터로 제작한 PLA, 낚싯대, 장식용 술, 운판, 컴퓨터),
각 400 × 300 × 350 cm(아해, 로봇 무당 4점), 가변
크기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윤수희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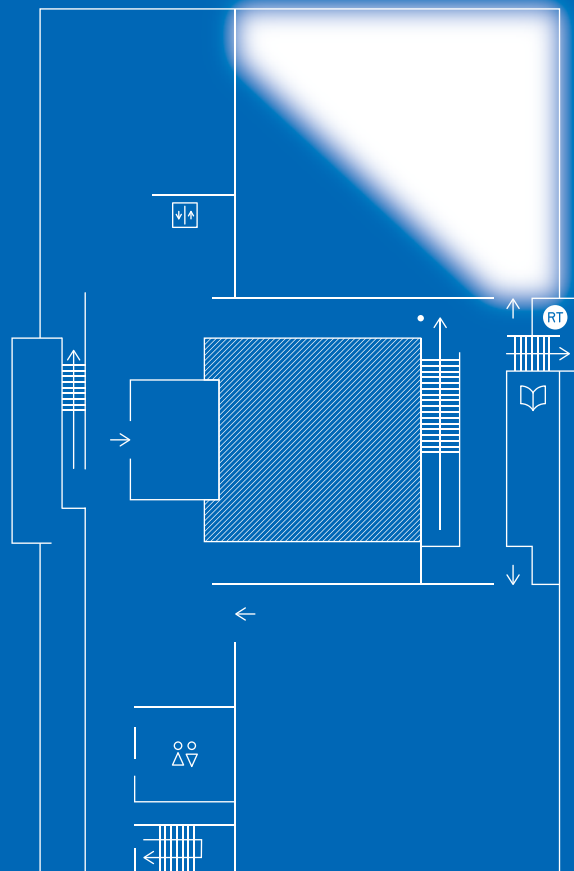
작가 제공

작곡가, 음악가, 새로운 악기를 제작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권병준은 최근 로봇을 이용한
‘기계적 연극’이라 부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무적으로 고안된 로봇들의 퍼포먼스는 음악, 연극, 미술을
가로질러 안개 스크린, 페이스 프로젝션 맵핑, 핑거 레이저,
신디사이저, 하이브리드 피아노, 연극적 조명과 같은 다양한
무대 장치를 실험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번 신작은 고대 중국의 도가 문헌인 『황금꽃의
비밀』에서 언급되는 자기 발견과 깨달음의 개념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작가가 해석한 신화의 중심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신과 인간의 언어를 번역하여 그 사이를 중재하는
13인의 무당이 있습니다. 문자 체계를 창조한 로봇 무당들이
별이는 의식은 이 세상에 불확실성, 모호함, 초자연적
믿음을 퍼뜨립니다.

7. 등가 교환



우리의 행성은 땅이 아니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모두 육지로만 되어 있지만, 지구는 유일하게 서로 연결된 바다, 맑은 샘물, 풍요로운 구름으로 형성됩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해서 물에서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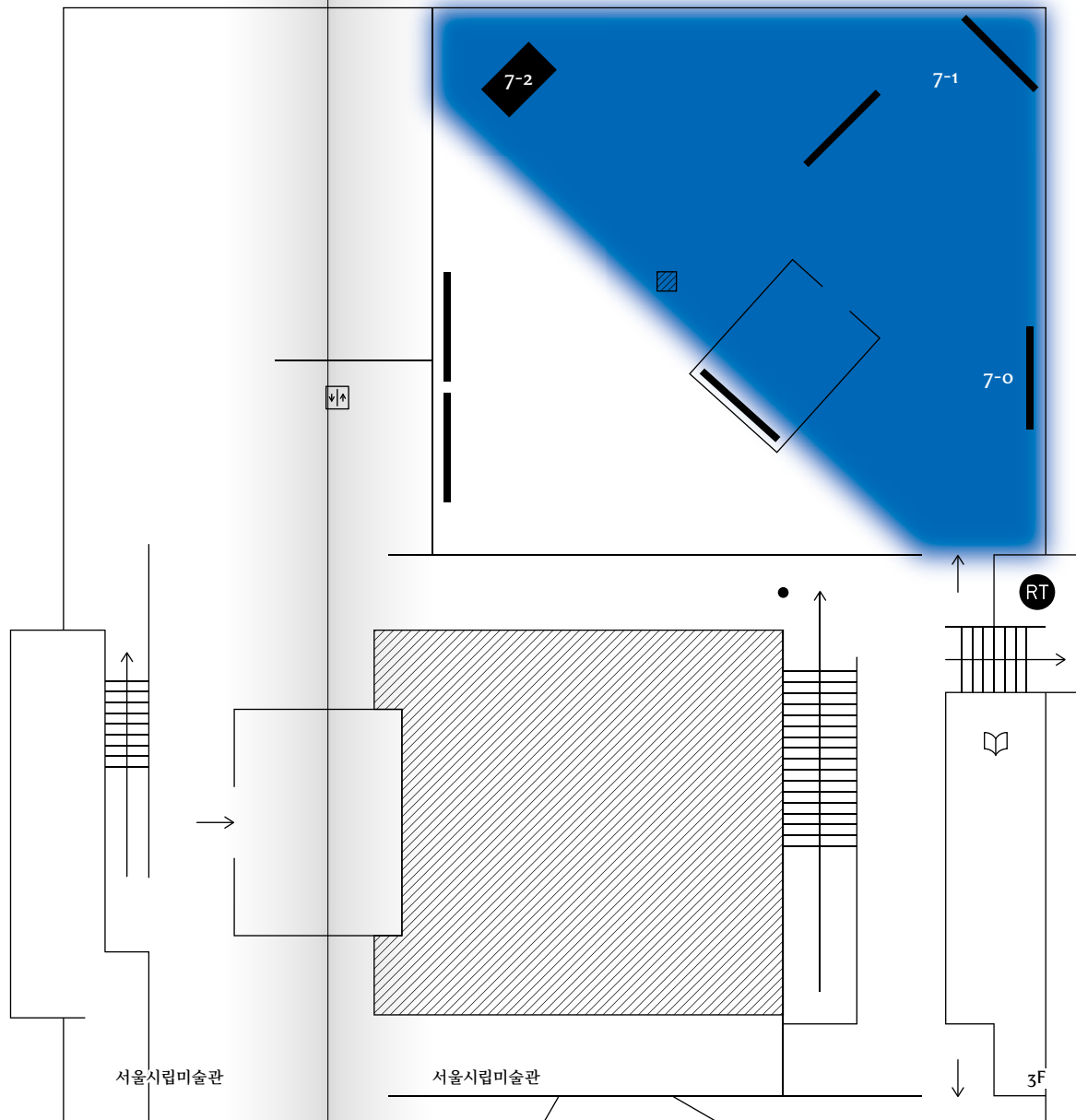
물은 다양한 물리적 상태를 통해 움직이고,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사는 풍경과 인구의 분포를 형성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물은 정체성이 안정적이고 견고하다는 가정에 도전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썼듯이, 우리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강이 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수역의 균형과 교환 체계를 탐구합니다. 무엇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며,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만약 모든 것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고, 항상 불안정하다면,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묻습니다.

7-0.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7-1. 제인 진 카이젠

7-2. 노무라 자이



7-0.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가족과 좀비〉, 2021

단채널 비디오와 재활용 타이어. 29분 23초(비디오), 가변 크기(타이어)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 재제작 지원
작가 제공

에미엔갈 언어에서 ‘카라빙’은 조수가 해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시점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선주민 공동체 기반의 풀뿌리 미디어 콜렉티브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의 고향을 잇는 호주 해안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묻혀 있던 공동체의 역사를 되살리고, 조상의 정신을 고양하며, 구성원들과 그 선조들이 살아온 환경의 파괴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주의적 역사 모델에 도전합니다.

카라빙의 작품에서 물은 일상의 일부이자, 토지 정치, 감시, 저항과 연결되는 구조적 요소로 등장합니다. 해안 지대를 따라 펼쳐지는 이들의 이야기는 조상들의 지식과 오늘날의 갈등을 엮어내며, 강요된 체계와 계승된 관계 관계 사이의 불균형적 교류를 드러냅니다. 재치 있고, 분노에 찬 날카로운 시선을 담은 이들의 작품은 저항의 표현이자 비판의 형태로 기능합니다.

〈가족과 좀비〉는 콜렉티브의 구성원들이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자신들의 물리적, 윤리적, 의례적

유대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와, 조상의 영적 존재들과 백인 좀비들이 출몰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오가며 전개됩니다. 코미디, 비극, 리얼리즘이 뒤섞인 이 영화는 독성 자본주의의 파괴적 관행과 그것이 미래 세계에 미칠 영향을 성찰하게 합니다.

7-1. 제인 진 카이젠

- (1) <도깨비>, 2024
 단채널 영화(4K,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3분 45초
 컨셉·편집: 제인 진 카이젠. 촬영 감독: 거스톤 손딘-퀼,
 라인 프로듀서: 권소영. 음악: 리오르 술리만. 색 보정:
 에두아르도 레베키. 사운드 엔지니어: 요람 바잔. 편집
 보조: 마티유 요한 한스 한센
 덴마크 문화부, 덴마크 예술 리서치 펀딩 프로그램 제작지원
- (2) <이 땅에 스며든 슬픔>, 2024
 단채널 영화(4K,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1분 11초
 컨셉·편집: 제인 진 카이젠. 촬영 감독: 거스톤 손딘-퀼, 다니엘
 족스. 라인 프로듀서: 권소영. 도깨비 역: 유홀리, 김재진.
 도깨비 가면: 서순실. 조감독: 그레이스 김성은. 음악:
 리오르 술리만. 색 보정: 에두아르도 레베키. 사운드
 엔지니어: 요람 바잔
 덴마크 문화부, 덴마크 예술 리서치 펀딩 프로그램 제작지원
- (3) <동요>, 2025
 퍼포먼스, 10-15분
 컨셉: 제인 진 카이젠. 프로듀서: 권소영. 안무가: 김보라.
 퍼포머: 고유진, 김지은, 김채희, 나경호, 박상미, 오현택,
 정주령. 퍼포먼스 코디네이터: 박상미, 이미진. 의상:
 이승준. 음악&사운드 믹스: 리오르 술리만. 리서치
 어시스턴트: 파울린 코피 반데트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퍼포먼스 커미션 및 덴마크
 예술재단 제작 지원
 작가 제공

퍼포먼스는 8월 25일, 28일과 9월 1일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17, 220, 222쪽을
 참조해주세요.

제인 진 카이젠은 터전을 잃은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광범위한 정치적 역사를 탐구합니다. 그녀의 영상과
 퍼포먼스에서 해양 환경은 문화의 융합과 세계의 만남에
 관한 은유적 장소이며, 해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교차의
 지점들은 갈등, 이주, 영적 실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두 편의 영상은 모두
 제주도의 버려진 휴양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땅에
 스며든 슬픔>에서 우리는 호텔의 무너져가는 콘크리트
 외벽을 강타하며 태풍처럼 쏟아지는 비를 목격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파괴된 풍경을 뒤덮었던 새들과 식물들이
 홍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파괴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깨비는 제주도의 무속 의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정령들입니다. 동명의
 영화에서 도깨비들은 한때 버려졌으나 이제는 무성한
 덩굴과 식물들로 뒤덮여 자연으로 되돌아간 옛 호텔 공간을
 춤추며 누입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변화무쌍한 존재인 도깨비 중 일곱이 퍼포먼스
 <동요>의 한 요소로서 댄서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온 것일까요?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장난을 치러 온 것일까요? 어쨌면 서로를
 감각하고,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다른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빛속에서 출현한 만큼 재빠르게 빛속으로
 사라집니다.

7-2. 노무라 자이

〈유령〉, 2024/2025

작고한 이들의 사진, 염색용 잉크, 물, 잉크젯 프린터, 물
 탱크, 오존수 발전기, 양수기, 미니 PC, LCD모니터,
 싱글보드컴퓨터, 키보드, 태블릿 PC, 인터넷 클라우드.
 152 × 102 × 60 cm

기술 지원: 고토 슈사쿠, 이케다 료스케, 타카히사 나가오,
 타츠야 니이, 노자키 유스케, 타카시 오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IHI 중공업, 일본 신작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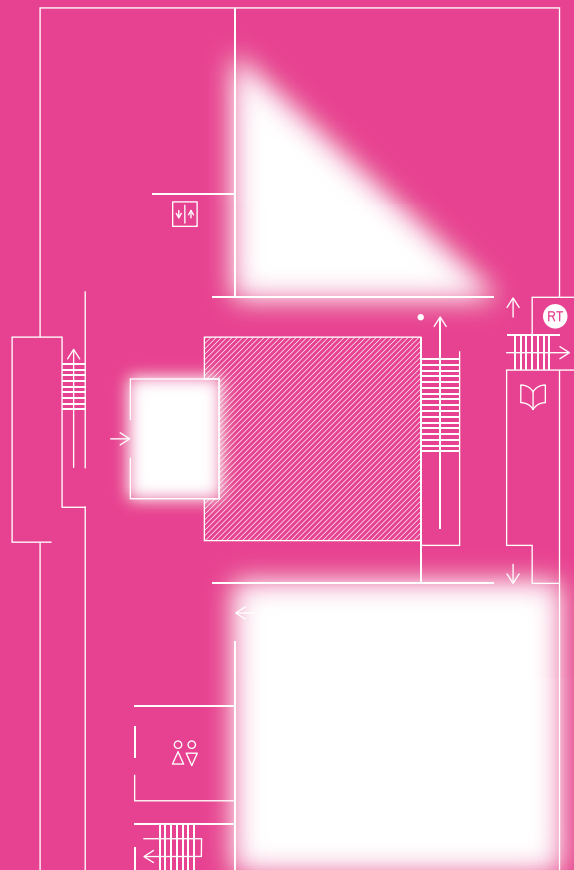
작가 제공

〈유령〉은 고인의 이미지를 물에서 출력하는 인쇄
 장치입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물 표면에 이미지를 새기면
 곧이어 아래의 수조로 흘러 들어가고, 인쇄된 망자의 사진은
 점차 물에 녹아 사라집니다. 이후 수조 속 물은 여과 및 정화
 과정을 거쳐 다음 인쇄를 위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순환은 일종의 갱신 또는 환생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작품의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령〉은 동서양의 전통에서 삶과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물 관련 의식을 언급하는 동시에 AI의 시대의 초상권
 문제를 다루고 조각과 사진 간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고인의
 육체적 죽음 이후 기억이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을 표현한 이
 작품은 삶뿐만 아니라 그 기록조차 덧없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함은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물질적 지지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죽음 속에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8. 적들이 승리한 세상에 망자의 안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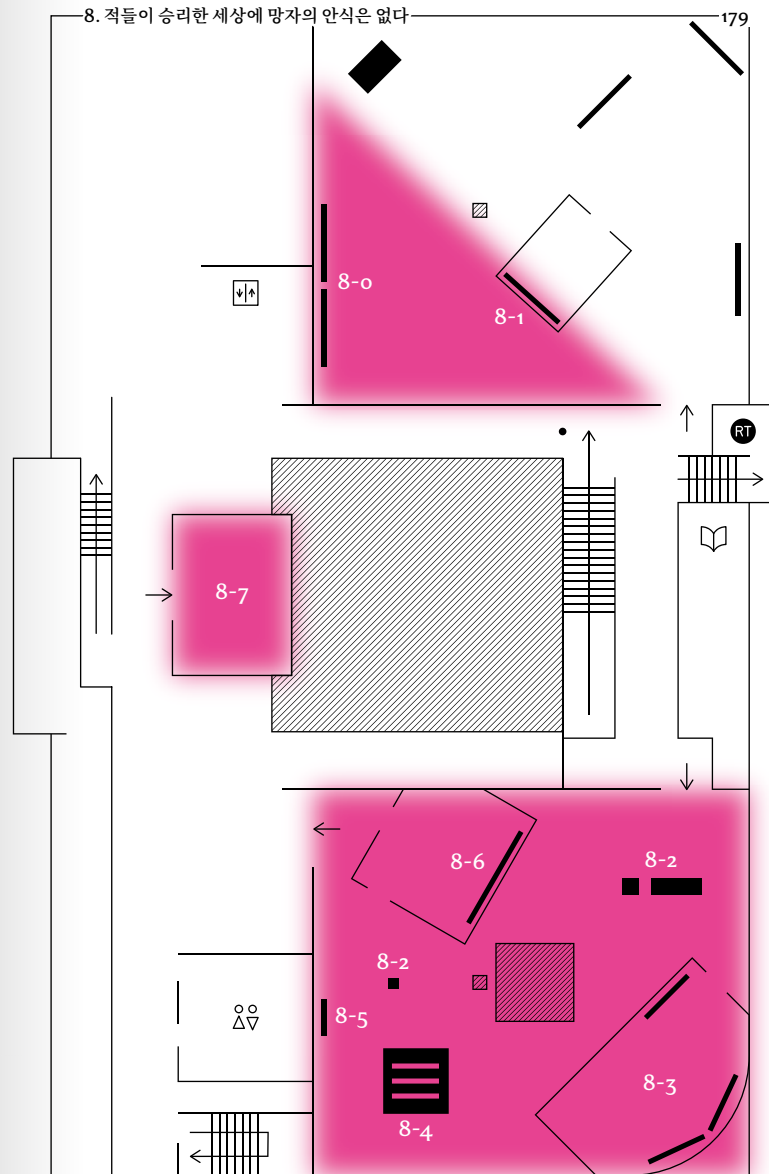
망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속에 머물고, 건물을 떠돌고, 파편으로 나타나며, 세상의 면면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은 영적 힘이자 정치적 결과로서 망자의 귀환을 다룹니다. 불안정하고, 시적이며, 황홀하기까지 한 기억의 형태들에 주목합니다. 망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산 자들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영혼과 유령들은 세상의 본질을 관통해 움직이며, 보이고 들리기를 요구합니다. 이 교란들, 억압받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망자를 존중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 중 삼분의 일 가까이가 이미 작고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 8-0. 스카이 호핀카
- 8-1.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 8-2.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
- 8-3.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 8-4. 모하메드 가베르
- 8-5. 박찬경
- 8-6. 아노차 수위차콘퐁
- 8-7.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탸 베게노프)



8-o. 스카이 호핀카

〈지하의 달〉, 2024

2채널 비디오. 29분 45초

작가 제공

스카이 호핀카의 작품은 북미 선주민의 우주론과의 지속된 교류의 결과물입니다. 이들 문화에서 망자는 사라지지 않고, 언어, 풍경, 숨결 속에 다시 자리 잡습니다. 줄리 니에미의 말처럼 호핀카의 깊이 있는 영적 영화는 “반복, 리듬, 목소리로 만든 헌사”이며 “신성함은 깜박임과 구조 속에서 드러나며, 틀을 붙잡고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개의 채널로 이뤄진 영상에서 작가가 직접 쓴 시구가 북미 선주민들의 파우와우(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연례축제) 장면이 병치됩니다. 사회자 루벤 리틀 헤드는 능숙하게 진행하며 현장의 관객은 물론 전시장의 관람객까지 북부 전통 무용 공연에 몰입하게 합니다. 두 번째 채널의 영상은 호핀카 특유의 형식적 실험을 거쳐 추상화되며, 관객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례를 관찰하는 이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성찰하게 합니다. 시는 변형된 이미지 위로 중첩됩니다.

체화된 카메라워크에서 형식적인 실험에 이르기까지, 호핀카의 영상은 니에미의 표현대로 “존재와 조상과 연결되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지하의 달〉은 문화유산이 박물관에 갇힌 형태로만 보존될 수 있다는 통념에 맞서, 소수 문화를 구속하는 여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8-1.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속삭임〉, 2025

단채널 비디오. 29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에콜 뒤 수아 공동 커미션

작가 제공

동시대 글로벌한 무빙 이미지계의 주요한 인물인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의 공동작 〈속삭임〉은 두 감독이 2024년 다카르비엔날레가 연기된 후 세네갈에 머물던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세네갈의 시인 비라고 디오프의 「영혼들」에서 “망자는 사실 죽지 않았다”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작품은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의 일상 풍경을 담아내며 “존재보다 사물에 더 자주 귀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작품은 디오프의 시가 제기하는 질문,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예술적, 혹은 영적 영향력을 통해 조상은 후손을 벗어나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는지를 고찰합니다. 〈속삭임〉은 한 생애를 넘어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유대감에 관한 성찰을 제시합니다.

8-2.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

(1) 〈비행 재킷(치킨 파티 비행 재킷 포틀래치 I, II, III)〉,
2006-2008

담 뻐, 끈, 공공 이벤트. 70 × 50 × 10 cm

(2) 〈치킨 파티(준비)〉, 〈비행 재킷〉 기록 영상 중에서, 2007
비디오, 컬러, 사운드. 45분

(3) 〈치킨 파티(낮)〉, 〈비행 재킷〉 기록 영상 중에서, 2007
비디오, 컬러, 사운드. 60분

(4) 〈치킨 파티(밤)〉, 〈비행 재킷〉 기록 영상 중에서, 2007
비디오, 컬러, 사운드. 60분

(5) 〈자가 치료〉, 2025
나무, CRT 모니터, CCTV 카메라, ‘아프리카-오세아니아’
박물관 색상에 일치하는 페인트 및 여러 자연물. 10 ×
46 × 13 cm

작가 제공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예술과 예술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용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작가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물, 의례가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지를 탐구하며, 자신의 작업이 “(세상을) 미학적, 사회적,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자가 치료〉는 20세기 초 중앙아프리카 콩고의 은키시 조각 양식에 바탕에 둔 인터랙티브 조각입니다. 조각상의 위와 머리 속에 활성화 약을 넣는 전통을 차용한 이 현대적인 조각의 몸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의 화면이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 되돌아오는 응시는 관객으로 하여금 마주침의 의미를 성찰하게 합니다. 상징적이고, 때로는 신성한 힘에 의존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난 대상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된 미적, 영적 기술로 기능하게 되나요?

〈비행 재킷〉프로젝트는 장기 여행을 앞둔 작가가 지역 공동체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바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음악, 음식, 선물을 제공하는 북미 선주민 전통 의식인 포틀래치에서 영감을 받아 DJ 세트와 영화 상영이 어우러진 무료 바베큐 행사를 여러 차례 열게 됩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전역에서 세 차례나 열린 ‘치킨 파티’는 그가 속한 지역 사회에게 대접하기 위한 의식적 행위였습니다. 작가는 파티에서 남은 닭 뼈를 수거하고, 세척하여, 껌맨 뒤 ‘비행 재킷’이라는 이름을 붙인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8-3.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쿠란데르스(치료사)〉, 2024

다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은 민족지학, 문학, 생태학을 기반으로 시각예술, 영화 및 탈식민을 연구하는 작가입니다.

스페인어로 ‘치료사’를 뜻하는 〈쿠란데르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종교 재판의 문서들에서 출발한 실험적 픽션입니다. 이 설치 작품은 17세기 포토시 은광에서 강제동원된 선주민 노동자들에게 코카 잎을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작품에 영감을 준 식민지 시대의 기록들은 단편적이며, 종교 재판관의 시각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누락된 이야기들을 서술하기 위해 〈쿠란데르스〉는 문화사학자인 사이디아 하트만이 제안한 ‘비판적 우화’를 참조하고 초기 무성 영화의 허구적 표현 기법을 차용합니다. 이 작품은 허구의 기록물으로서, 코카 식물을 둘러싼 목소리와 실천이 지워진 역사에 주목합니다.

억압된 역사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쿠란데르스〉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이를 통해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으로서 예술을 제시합니다.

8-4. 모하메드 가베르

〈마샤크〉, 2021

캐시미어 울로 짠 편직물. 205 × 145 cm

〈마법 문자 형태〉, 2022

직물과 플렉시글라스. 242 × 120 cm(직물), 가변 크기

(플렉시글라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플렉시글라스 재제작 지원
작가 제공

모하메드 가베르는 아랍 문자 형태의 계시적인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아랍어 캘리그래피는 종교와 장식 예술적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전통적 방식 너머로, 서체적 전통에 담긴 비밀스러운 지식과 억압된 역사를 드러냅니다.

〈마법 문자 형태〉는 수피 신비주의자 아흐마드 이븐 알리 알부니가 완성한 13세기 오컬트 과학의 개요서 속 비밀 도해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랜 시간 금서로 지정된 이 책은 이슬람의 우주론, 숫자점(수를 이용한 점술), 신을 향한 기도 주문을 아우르며 한데 엮어 신비주의 지식과 의례적 실천의 체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작품의 중앙에는 마방진이 자리합니다. 격자에는 숫자 대신 각기 고유한 수치를 지닌 아랍 문자가 아브자드 체계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방진은 일종의

부적으로 쓰여왔는데, 각각의 배열에는 보호, 치유, 계시, 영적 존재와의 채널링과 같은 형이상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방진 아래에는 우주의 직인과 같은 원형 도식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도식은 우주의 숨겨진 질서와 조화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기하학적 배열과 신성한 이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주문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명상에 활용되거나 영적인 힘이 깃들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쿠란의 구절들과 신의 이름들이 예술적으로 꾸며진 문자 형태로 새겨져, 마치 보호하는 듯 울타리처럼 작품을 감싸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고유한 신성을 불러내며, 작품 곳곳에 신의 현존과 보호의 의미를 새겨 넣습니다.

‘마샤크’는 서예의 대가가 쓴 선언문을 의미합니다. 동명의 제목을 가진 가베르의 작품은 동시대 아랍 문자 형태의 발전에 관하여 작가가 지속해 온 연구 프로젝트인 ‘타입 플랫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라바 알-아다위와 하페즈 알-시라지가 잃어버림에 대해 쓴 수피교의 시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를 통해 기억이 전승되어 온 방식을 성찰합니다.

8-5. 박찬경

〈해통선사〉, 2025

캔버스에 유화. 80 × 80 cm(2점); 112 × 161 cm

작가 제공

시각 예술가, 영화감독, 작가로서 박찬경의 작업은 현기증이 날 만큼 빠르게 변화해 온 서구화 근대화 속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불교와 무속을 위시한 민간 신앙의 영향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하는 신작 회화는 13세기에 편찬된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나라 무외삼장(無畏三藏)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유학을 떠난 해통선사는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는 스승에게 화로(火爐)를 머리에 이고 가 불법(佛法)을 배우고자 하는 결의를 내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불교사찰 외벽에 자주 그려지고 있고, 작가는 이 그림을 해석하고 변형해 다시 그렸습니다.

작가는 해통선사 그림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찰 벽화가 우주, 의미, 죽음 등에 대한 깊은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답 없음’을 즐기도록 하는 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가에 의하면 ‘부정확한’ 원근법과 민화풍의 그림은 선문답(禪問答)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더욱 유희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8-6. 아노차 수위차콘퐁

〈서사〉, 2025

단채널 비디오. 49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아노차 수위차콘퐁의 영화는 정치적 트라우마가 마치 우리의 삶을 떠도는 유령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들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작품에서 작가적 주제인 역사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대신 형이상학적 방해물처럼 영화의 세계를 관통하게 하고, 일종의 유령적 시네마를 구축합니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작품 〈서사〉는 2010년 방콕에서 군부가 민주주의 시위대와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다루는 가상의 재판에 관한 영화의 리허설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15주기를 맞아 촬영된 이 작품은 태국 정부가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시민 참여 재판에 대한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장편 영화의 제작 장면과 목격자의 증언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서 기능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가진 허구성을 드러내고, 관객으로 하여금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성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와 허구의 서사 모두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일깨웁니다. ‘공적’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구조들을 은폐하기를 일삼으며, 권력에 반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불법화하기 위해 진실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합니다.

8-7.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 (1)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사원〉, 2025
알루미늄 도시락 용기, 쿠킹호일, 조명, 사운드 등 복합 설치.
가변 크기

- (2)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2025
퍼포먼스. 90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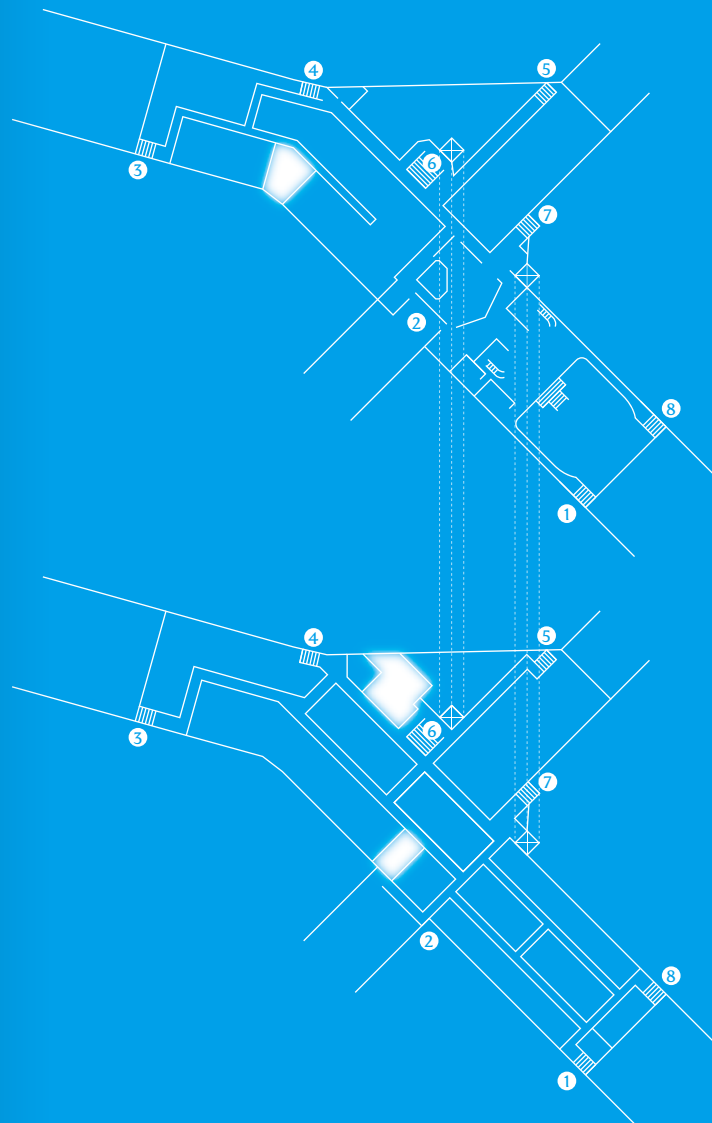
ORTA의 퍼포먼스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청년예술청 SAPY에서 진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232쪽을 참고해주세요.

공연가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연출가 루스탐 베게노프가 알마티에서 설립한 ORTA는 카자흐족의 선지자 세르게이 칼미코프(1891-1967)에게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천재 이론”이라는 예술과 철학 체계를 전파하는 콜렉티브입니다. ‘모든 이의 천재성의 힘’과 같은 개념을 연극적이고 유희적으로 보여주는 ORTA의 방식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원자폭탄 실험이라는 트라우마적 역사를 파괴적인 힘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사원〉은 ‘새로운 천재 이론’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원의 중심에는 카자흐족 전통적 문화로, 집집마다 가보로

내려오는 벽면용 카펫 투쉬 키이즈가 놓여 있으며, 그 위에는 칼미코프의 마법 같은 말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사원은 5,000개의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로 서울시립미술관 크리스탈 갤러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ORTA는 이 공간을 “미술관의 예술적 에너지가 모이고 집중되는 크리스탈”로 상정합니다. 여기 “경이로운 통로”에 들어온 이들은 파괴적인 힘을 창조성으로 전환하는 자신의 천재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9. 유리드미



영매는 무엇보다도 깊이 듣는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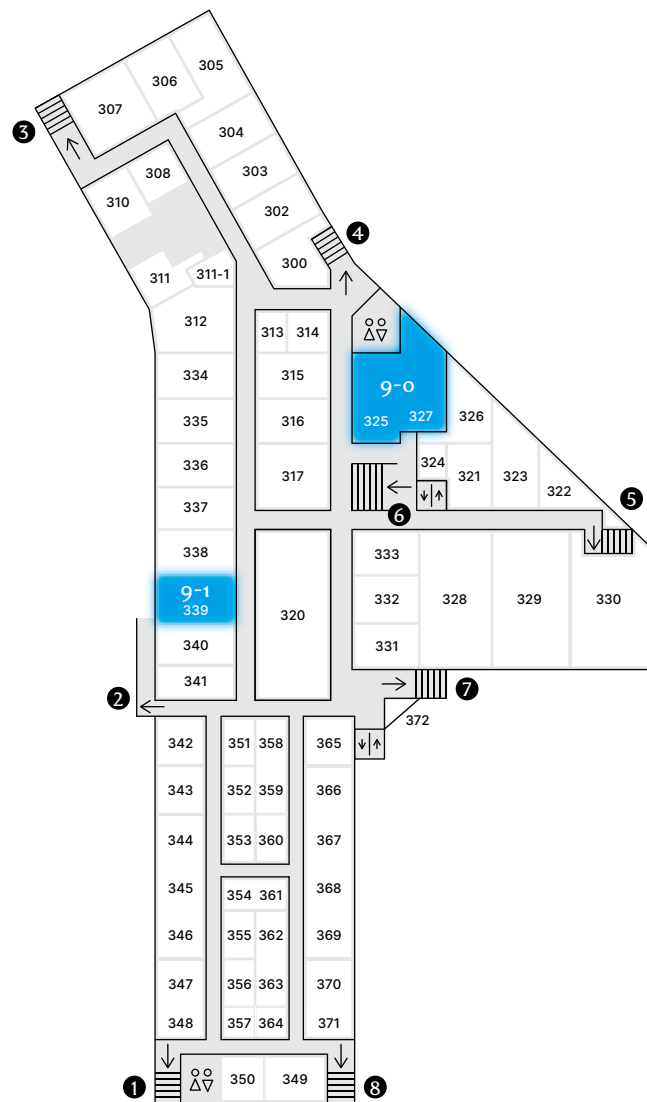
음악은 언제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길이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후 조화의 법칙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원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의 순간을 ‘빅뱅’이라고 부르며 그 울림을 들으려 애씁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귀 기울이면 우주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리드미’는 움직임의 예술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예술의 형식이자 치료법으로 개발한 이 기법은 말과 음악의 소리를 몸짓과 안무로 바꿉니다. 이는 춤이라기보다 일종의 영매술에 가까우며, 영원한 의미를 담은 매개체를 육체적이면서도 덧없는 형태로 옮겨내는 수단입니다.

이 장은 귀 기울임을, 어쩌면 춤을 추는 것까지도 권유하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9-0. 사운드룸

9-1. 아밋 두타



9-0. 사운드룸

사나 알마제디의 기획으로 구성된 사운드룸은 다른 세계로 향하는 포털로 소개됩니다. 사운드아트와 실험 음악에 헌정하는 비엔날레의 특별 섹션은 녹음 장치를 통해 망자의 소리를 듣는 듯한 섬뜩한 경험, 라디오가 지닌 예지적 가능성, 우리를 신체와 연루된 세계 밖으로 움직이게 하는 실험 음악의 잠재력을 불러냅니다. 라 몬테 영, 로리 스피겔, 리징쑹, 마타나 로버츠, 메레디스 영-사우어스, 발터 스메타크, 아니아 록우드, 안토니나 노바츠카, 야라 메카웨이, 온다 아키, 이아름, 조시 드 올리베이라, 제리 헌트, 최정희, 칼 미카엘 폰 하우스볼프 등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사운드룸은 무의식, 망자, 그 너머로부터 전해지는 음파의 차원을 탐구합니다.

9-1. 아밋 두타

〈치트라살라(그림의 집)〉, 2015
단채널 비디오. 19분(반복 재생)

〈스케치북의 장면들〉, 2016
단채널 비디오. 21분(반복 재생)

작가 제공

아밋 두타의 영화는 시간을 다양하게 변주합니다. 리듬, 침묵, 템포를 통해 그는 마치 그 자체로 숨결과 생명을 가진 이미지들이 아다지오로 연주되는 음악처럼 천천히 펼쳐지는 영화를 창작합니다.

〈치트라살라(그림의 집)〉은 파하리파 거장으로 알려진 나인수크의 가문에서 제작한 히말라야 세밀화 47점을 소장하고 있는 인도 잠무의 아마르 마할 궁전 박물관을 배경으로 합니다. 관람객이 떠난 전시장에서, 12세기 산스크리트 서사시 「날라와 다마얀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림들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며 전개되는 두타와 나인수크의 대화는 〈스케치북의 장면들〉에서 계속됩니다. 이 단편 영화는 18세기 화가의 채색화 중 ‘미완성’인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채색을 마치지 않은 부분에 적혀있는 놀라운 구절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작품의 구상 단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영화로 시도하면서 두타는 거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초월적인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상상력이 도약하는 과정을 기념합니다.

9-2. 온다 아키

(1) 〈백남준의 영혼이 내게 말했다〉, 2017/2022
필드 레코딩, 사진, 영상, 라디오, 텍스트. 가변 크기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재제작 지원

(2) 〈카세트 솔로〉, 2025
퍼포먼스. 40분

작가 제공

온다 아키의 퍼포먼스는 9월 2일 사운드룸(325호)에서 진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224쪽을 참고해주세요.

2010년 예술가이자 작곡가 온다 아키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일련의 퍼포먼스를 위해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호텔방에서 휴대용 라디오로 채널을 돌리던 중 그는 전자 신호와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침묵하는 목소리”를 듣고, 이것이 고인이 된 백남준의 영혼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라 느끼게 됩니다. 그날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같은 라디오를 통해 백남준의 영혼을 불러들였고, 이와 같은 ‘강령회’를 녹음기에 담아 최소한의 편집만을 거쳐 전시했습니다.

온다는 이 녹음을 “미스터리로 가득 찬 매체”로서 라디오의 잠재력을 탐구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익명의 방송국들에서 전송되는 “비밀

방송”을 녹음하거나 군사 혹은 첩보 목적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포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전에 무속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백남준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청자가 어떻게 해석하든, 이 작업은 현존하는 예술가와 그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선조 사이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10. 시네마



오래전부터 영화는 강령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습니다. 영화라는 형태가 생겨나면서 감독들은 산 자와 망자,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영성을 매개하기 위해 이미지와 현실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영화 프로그램은 영화를 일상 속 신성의 발현으로 보는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의 비전과 영화를 공통 의례로서 살펴보는 마야 데렌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습니다. 망자와의 대화, 조상들의 숨결, 프시케와 스크린, 일상 속 신비주의라는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총 스물 한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강령: 영혼의 기술》영화 프로그램

2025. 08. 26 - 11. 23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주관 및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SeMA 파트너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티켓 예매는 상영 일정 2주 전부터 서울아트시네마 웹사이트에서 열립니다.

<https://www.cinematheque.seoul.kr/>

망자와의 대화

08.30

-
- (1) 라울 루이즈, 〈다가올 영화〉, 1997 (8 min)
 - (2) 마르셀 카뮈, 〈흑인 오르페〉, 1959 (107 min)
-
- (3) 이장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1987 (117 min)

09.06

-
- (4) 마티 디옴, 〈애틀랜틱스〉, 2019 (106 min)

09.13

-
- (5) 트린 T. 민하, 〈밤의 여로〉, 2004 (98 min)

조상들의 숨결

09.20

- (6)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찬란함의 무덤>, 2015
(122 min)

09.27

- (7) 카밀로 레스트레포, <실라오스>, 2016 (13 min)
(8) 술레이만 시세, <광채>, 1987 (105 min)

10.04

- (9) 가와세 나옴이, <너를 보내는 숲>, 2007 (97 min)
(10) 카롤린 데오다, <페티시의 하늘 아래>, 2023
(11) (17 min)
타카미네 고, <변어로>, 2017 (81 min)

프시케와 스크린

10.11

- (12) 켄 맥멀런, <고스트 댄스>, 1983 (100 min)

10.18

- (13) 마야 데렌, <오후의 그물망>, 1943 (14 min)
(14) 루이스 부뉴엘, <욕망의 모호한 대상>, 1977
(104 min)

10.25

- (15) 니나 멘케스, <팬텀 러브>, 2006 (87 min)

11.01

- (16) 페드로 코스타, <호스 머니>, 2019 (124 min)

일상 속 신비주의

11.08

-
- (17) 로베르토 로셀리니, <기적>, 1948 (40 min)
 - (18) 장뤽 고다르, <마리아에게 경배를>, 1985 (72 min)

11.15

-
- (19)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달에서 본 지구>, 1967
(11 min)
 - (20)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체리향기>, 1997 (92 min)

11.22

-
- (21) 알리체 로르와커, <키메라>, 2023 (130 min)

공공
프로그램

《강령: 영혼의 기술》 공공 프로그램
2025. 08. 26 - 11. 23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 SAPY

8월 25일	
(월)	초청자 only
프리뷰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5.00-16.3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사전 예약자 대상
개막식	개막식
17.00-18.00 (60 min)	참여자 SeMA 관계자, 예술감독팀, 대표작가 장소 SeMA 로비 통역 순차
퍼포먼스	〈동요〉
18.15-18.30 (15 min)	작가 제인 진 카이젠 장소 SeMA 로비와 마당
퍼포먼스	〈분신행위예술전〉(1989/2025) 재연
19.30-20.00 (30 min)	작가 이승택 장소 SeMA 마당

8월 26일

(화)

강연	‘강령: 탈소외의 기술’
16.00-17.00 (60 min)	강연자 엘레나 보그만 장소 SeMA B1F 세마홀 통역 동시
라운드 테이블	작가 라운드 테이블 1
17.30-19.00 (90 min)	사회 벤 이스턴 장소 SeMA B1F 세마홀 통역 동시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9.30-21.0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8월 27일

(수)

강연	‘영적 세계를 위한 작가, 조지아나 하우튼’
16.00-17.00 (60 min)	강연자 로레인 리 텃 장소 SeMA B1F 세마홀 통역 동시
라운드 테이블	작가 라운드 테이블 2
17.30-19.00 (90 min)	사회 벤 이스턴 장소 SeMA B1F 세마홀 통역 동시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9.30-21.0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8월 28일

(목)

시상식	2025 SeMA-하나 미디어 아트상
14.00-15.00 (60 min)	참여자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심사위원단 등 장소 SeMA B1F 세마홀 통역 순차

퍼포먼스	〈동요〉
19.00-19.15 (15 min)	작가 제인 진 카이젠 장소 SeMA 로비와 마당

8월 29일

(금)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9.30-21.0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8월 30일

(토)

토크	영화 프로그램
13.00-13.30 (30 min)	작가/참여자 SMB13 예술감독팀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통역 순차

상영	영화 프로그램: ‘망자와의 대화’
13.30-15.25 (115 min)	상영작 라울 루이즈, 〈다가올 영화〉(1997), 마르셀 카뮈, 〈흑인 오르페〉(1959)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상영	영화 프로그램: ‘망자와의 대화’
16.10-18.07 (117 min)	상영작 이장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7)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3.00-14.3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19.30-21.00 (90 min)	

8월 31일

(일)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3.00-14.3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9월 1일

(월)

초청자 only

프리뷰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프리뷰
15.00-17.00 (120 min)	참여자 SeMA 관계자, SMB13 예술감독팀, 대표작가 장소 SeMA 전시실 통역 순차
퍼포먼스	〈동요〉
18.00-18.15 (15 min)	작가 제인 진 카이젠 장소 SeMA 로비와 마당

9월 1일

(월)

초청자 only

리셉션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리셉션
18.30-19.30 (60 min)	장소 SeMA 옥상
토크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조화’
19.30-20.00 (30 min)	작가/참여자 SMB13 예술감독팀 장소 SeMA 옥상 통역 순차
상영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조화’
20.00-20.50 (50 min)	상영 작가 스카이 호핀카, 제인 진 카이젠,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장소 SeMA 옥상

9월 2일
(화)

퍼포먼스	카세트 솔로
16.00-16.40	작가 온다 야키 장소 낙원상가 325호
강연	‘천사와 악마들. 조울과 세계 건설’
18.00-18.45 (45 min)	강연자 다니엘 무지추크 장소 SeMA BIF 세마홀 통역 동시
토크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반환’
19.30-20.00 (30 min)	작가/참여자 SMB13 예술감독팀 장소 SeMA 옥상 통역 순차
상영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반환’
20.00-20.50 (50 min)	상영 작가 콜렉티보 로스 잉그라비도스, 슈 차웨이,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장소 SeMA 옥상

9월 2일
(화)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9.30-21.00 (90 min)	작가 ORTA 장소 SAPY 그레이홀
9월 3일 (수)	
토크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교섭’
19.30-20.00 (30 min)	작가/참여자 SMB13 예술감독팀 장소 SeMA 옥상 통역 순차
상영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교섭’
20.00-20.50 (50 min)	상영 작가 요아킴 퀴스터, 타마르 귀마래스, 안젤라 수 장소 SeMA 옥상

9월 3일

(수)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9.30-21.00

작가 ORTA

(90 min)

장소 SAPY 그레이홀

9월 4일

(목)

토크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각몽(覺夢)’

19.30-20.00

작가/참여자 SMB13 예술감독팀

(30 min)

장소 SeMA 옥상

통역 순차

상영

SMB13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각몽(覺夢)’

20.00-21.00

상영 작가 정위안, 아밋 두타, 아노차 수위차콘퐁

(60 min)

장소 SeMA 옥상

9월 5일(금)-

7일(일)

퍼포먼스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13.00-14.30

작가 ORTA

(90 min)

장소 SAPY 그레이홀

19.30-21.00

(90 min)

9월 6일(토)-

11월 22일(토)

상영

영화 프로그램

세부 일정표 참조 (210-214페이지 참조)

13:00-TBD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60-120 min)

10월 23일

(목)

워크숍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14:00-18:00

작가/참여자 김경호, 만리아트 메이커스

(240 min)

장소 SeMA 3F 프로젝트 갤러리

10월 30일

(목)

워크숍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14:00-18:00

작가/참여자 김경호, 만리아트 메이커스

(240 min)

장소 SeMA 3F 프로젝트 갤러리

11월 06일

(목)

워크숍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14:00-18:00

작가/참여자 김경호, 만리아트 메이커스

(240 min)

장소 SeMA 3F 프로젝트 갤러리

11월 13일

(목)

토크

‘SMB 웹 시스템’

미정

작가/참여자 민구홍, 안그래픽스

(60 min)

장소 SeMA B1F 세마홀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2025. 09. 01 – 09. 04

* 09.01 초청자 only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옥상

SeMA 파트너 프리즈

프로젝터 협찬 한국옵손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프리즈 필름 서울 2025와의 파트너십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옥상에서 영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스크린의 영적이고, 신비로우며, 마법같은 힘을 통해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네 가지 소주제 **조화, 반환, 교섭, 각몽(覺夢)**으로 구성된 영화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기획자들의 토크와 더불어 상영될 예정입니다.

Day 1	(1) 스카이 호핀카, 〈형상과 이성의 기억술〉, 2021
조화	(2) 제인 진 카이젠, 〈어귀〉, 2024
09. 01	(3)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코카를 위하여〉, 2023
19.30-20.50	
Day 2	(4) 콜렉티보 로스 잉그라비도스, 〈코올샤우키〉,
반환	2017
09. 02	(5) 슈 차웨이, 〈마샬 티에 지아 —
19.30-20.50	거북섬(鐵甲元帥—龜島)〉, 2012
	(6)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위타르, 바다 꿈〉, 2016
Day 3	(7) 요아킴 뢰스터, 〈해시시 클럽〉, 2009
교섭	(8) 타마르 귀마레스, 〈진동하는 물질의 비주류적
09. 03	역사 연구〉, 2017
19.30-20.50	(9) 안젤라 수, 〈로렌 오의 경외로운 공중부양〉, 2022
Day 4	(10) 정위안, 〈드림 딜리버리〉, 2018
각몽(覺夢)	(11) 아밋 두타, 〈헤마디 씨의 중단된 꿈들〉, 2024
09. 04	(12) 아노차 수위차콘풍, 〈그레이스랜드〉, 2006
19.30-20.50	

SMB13 퍼포먼스 프로그램**〈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2025. 08. 25 - 09. 07

화, 수, 금 19.30-21.00

토 13.00-14.30, 19.30-21.00

일 13.00-14.30

*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공연 없음

리닝타임 90-100분. 휴식시간 없음

장소 청년예술청 SAPY

작가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가이드 퍼포머 알렉산드라 모로조바

컨셉, 드라마투르기, 장치 및 조명 디자인 루스탐 베게노프, 알렉산드라

모로조바

연출, 음악, 사운드 디자인 루스탐 베게노프

서울 퍼포먼스를 위한 영상 테스트 및 촬영 크리스티앙 타피에스

알마티 리허설 사진 및 영상 촬영 누르타스 시세케노프

서울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박서현

서울 스테이지 테크니션 김배준

주관 및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SeMA 파트너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SAPY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가능

<https://mediacityseoul.kr/en/today/programs>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은 ORTA의 '새로운 천재 이론', 카자흐스탄의 선지자 세르게이 칼미코프(1891-1967)에게서 영감을 받은 예술-철학 체계의 보편적 구성, 천재의 힘, 그리고 기타 개념들을 탐구하는 의례적이고 연극적이며 유희적인 공상과학 실험입니다.

관객들은 가시적인 현실의 초월, 원자의 비인간성과의 대면,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천재성에 대한 숭배,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의 집단적 변형을 포함하는 다면적 의례로 초대됩니다. 칼미코프의 초월적 텍스트, 고대 민요, 장자의 철학,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원자폭탄 실험 생존자들의 증언을 아우르는 이 공연은 가이드검 퍼포머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서울의 프로덕션팀이 이끌며, 15,000개의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로 구축된 몰입적 환경에서 펼쳐지는 실험 퍼포먼스입니다.

이 실험의 온전한 참여자로 초대된 관객은, 혁명적인 발명품인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를 창조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작가 소개

작가 소개

과달루페 마라비아
(1976년 출생, 뉴욕에서 활동)

과달루페 마라비아는 8살에 엘살바도르 내전을 피해 무국적자이자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헨터 칼리지에서 MFA 과정을 밟던 중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달루페 마라비아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 마이애미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뉴욕 퀸즈미술관 등 여러 주요 기관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 141쪽

권병준
(1971년 출생, 서울에서 활동)

199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음악 경력을 시작한 권병준은 얼터너티브 록에서부터 미니멀 하우스를 포괄하는 6개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영화 사운드 트랙, 패션쇼,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 작업을 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며, 소리학과 예술 & 과학을 공부한 후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인 스타임에서 공연과 사운드 등에 관한 실험적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1년 귀국한 이후 새로운 악기와 무대장치를 개발, 활용하여 음악, 연극, 미술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연출하였습니다. 소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연구자이자 사운드를 공간으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온 작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기계적 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158쪽

노무라 자이
(1979년 출생, 도쿄와 효고, 뉴욕에서 활동)

노무라 자이는 런던 골드스미스칼리지에서 MFA를 수료한 뒤, 도쿄 무사시노대학에서 미술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장애가 있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과 어릴 적 겪은 1995년 고베 대지진은 작가로 하여금 물질의 영속성과 존재의 안정성에 관해 질문하게 하였고, 그의 예술 작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참여한 전시로는 도쿄 시세이도 갤러리, 도쿄 TOKAS 혼고, 뉴욕 재팬소사이어티, 아이치 국제트리엔날레 등이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문화청의 지원을 받아 뉴욕 ISCP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171쪽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
(1871-1948)

일본 신토(神道)계의 신홍 종교였던 오모토(大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데구치 오니사부로(은병, 철학자, 예술가로서 신은 우주 전체에 깃든 영적 존재이며 모든 종교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술은 종교의 어머니”라고 선언한 그는 서예, 회화, 단가(短歌)와 더불어 수십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군국주의와 초국수주의로 치달던 일본 정부가 오모토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투옥되었고, 수감 중 라쿠다완(樂茶碗)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15개월 만에 3,000점이 넘는 찻잔을 제작했으며, 작가의 사후에 빛나는

찻잔이라는 뜻을 가진 요완(耀盞)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 72쪽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1983년 출생, 브뤼셀, 파리, 보고타에서 활동)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은 시각 예술, 영화, 탈식민 연구를 연결하며 영상을 주요 매체로 두고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영화와 설치 작업은 뉴욕 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상파울루미술관, C/O 베를린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베를린국제영화제, 로카르노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토크온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와 르 프레누아를 졸업하고, PSL 대학교에서 실무 기반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의 감각민족지연구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AWARE상과 올리케 크레스포 사진상 '에프터 네이치'를 수상했습니다.
→ 185쪽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1942-2016)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는 아바나의 산 알레한드로 국립미술학교에서 조각과 판화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쿠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근무하며 역사학자 훌리오 르 리베랭의 비서로 일했는데, 이를 통해 앤틸레스 제도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인들의 정체성에 깃든 아프리카적 뿌리를 주축했던 예술가 콜렉티브 '그루포 안틸라노'의 창립 멤버였으며, 자신의 작업을 통해 아프로-쿠바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일생의 활동을 주력했습니다.

→ 50쪽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육, 농업, 의학, 예술, 건축, 영적 과학 분야의 선구적인 개혁자였습니다. 신지학과 결별한 후 스위스의 도르나흐에 있는 괴테아움을 본부로 삼아 새로운 영적 운동인 인지학을 창립했습니다. 1983년 열린 하랄트 제만의 기획 전시《총체예술을 향한 경향》에서 슈타이너가 공개 강연 중에 그린 ‘칠판 드로잉’이 소개되면서 그의 활동이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2011년 비트라 디자인뮤지엄에서 《루돌프 슈타이너: 일상의 연금술》 회고전이 개최됐으며, 2013년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의 국제미술전에 54점의 칠판 드로잉이 출품된 바 있습니다.

→ 60쪽

뤼실 올랭프 오프

(1984년 출생, 파리에서 활동)

예술가, 연구자, 교육자로 활동하는 뤼실 올랭프 오프는 최근 망엔하겐의 쿤스트페아라인과 생테티엔의 레 랑브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도르트문트의 하르트베어 메디엔쿤스트페아라인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고, 렌의 국립시문학관 메종 드 라 포에지와 파리의 게테 리리크 등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된 〈사이버마녀 선언문〉은 인벤토리 프레스에서 2023년 출판하고 민디 서가 편집한 『사이버페미니즘 인덱스』에 수록되었습니다.

→ 89쪽

마누엘 마티유

(1986년 출생, 몬트리올에서 활동)

마누엘 마티유의 작업은 출생지이면서 성장기의 배경이 된 아이티와 19세 때 몬트리올로 이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역사적 폭력, 문화 말살, 정체성 형성과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런던 골드스미스칼리지를 졸업한 그는 최근 노스마이에미 현대미술관, 벅스힐의 드라워파빌론, 상하이 K11 아트파운데이션, 몬트리올미술관, 토토너 파워플랜트, 런던 ICA에서 개최된 전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 102쪽

마야 데렌

(1917-1961)

마야 데렌은 실험 영화제작자, 안무가, 이론가로, 1922년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오후의 그물망〉(1943)은 알렉산더 해미드와 공동 연출하였으며, 아방가르드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물에서〉(1944), 〈카메라를 위한 안무 연구〉(1945), 〈변형 시간의 의례〉(1946) 등의 작품들을 통해 움직임, 시간, 공간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1954년 신진 영화제작자들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필름재단을 설립한 데렌은 실험 영화의 이론, 실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 98쪽

마이크 켈리

(1954-2012)

마이크 켈리는 퍼포먼스, 설치, 드로잉, 회화, 비디오, 사진, 사운드 작업, 텍스트, 조각 등 매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들며 작업한 작가입니다. 1970년대 후반 단독 퍼포먼스, 회화, 장소특정적 설치로 활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평범한 공예 재료로 구성된 조각 작품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었고, 후기에는 건축, 제도, 기억이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성찰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뉴욕 휘트니미술관, 암스테르담 스테델릭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주요 회고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100쪽

모하메드 가베르

(1986년 출생, 카이로에서 활동)

서체 디자이너이자 시각미술가로 활동하는 모하메드 가베르는 오픈소스 아랍어 서체 제작에 특화된 키프타입파운드리를 설립하고, 아랍 문자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인 타입플랫폼을 창립했으며, 암스테르담 샌드버그인스티튜트의 타입랩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의 서체 디자인은 구글 폰트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여러 작품은 두바이 디자인위크, 베를린 CTM 페스티벌, 제17회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암스테르담 미디어매틱 등 여러 전시와 축제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186쪽

박찬경

(1965년 출생, 서울에서 활동)

박찬경은 한국의 분단과 냉전, 전통 종교 문화, 한국과 동아시아 미술 등을 주제로 글, 사진, 영화, 설치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세트〉(2000), 〈파워통로〉(2004), 〈신도안〉(2008), 〈파란만장〉(2011, 박찬옥 공동 연출), 〈만신〉(2013), 〈시민의 숲〉(2016), 〈반신반의〉(2018), 〈늦게 온 보살〉(2019) 등이 있으며, 워싱턴 D.C. 스미소니언아시아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레드캣갤러리, 런던 이니바, 제10회 타이페이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갤러리, 뉴욕 티나킵갤러리, 요코하마트리엔날레 등에서 전시했습니다. 2004년 에르메스코리아미술상, 2011년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 2011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 등을 받았으며, 2014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의 예술감독을 맡았고, 2019년 〈MMCA 현대차 시리즈〉작가로 선정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모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188쪽

백남준

(1932-2006)

백남준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실천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오늘날 미디어로 포화된 세상을 예견한 선지적 작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음악을 공부한 작가는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35년간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서울 랍소디〉(2002)에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바이 바이 키플링〉(1986)

등 혁신적인 비디오 작품들이 들어있고, 아직까지 여러 미술관과 공공 장소에서 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백남준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제1회 도시와 영상(1988-2002) 및 미디어_시터 서울 2000《도시: 0과1 사이》에도 참여하여 서울의 중요한 현대미술 축제가 지속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 78쪽

비올렛 e a
(1986년 출생, 바르샤바에서 활동)

콜롬비아와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비올렛 e a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시, 서사, 오브제 사이를 넘나드는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1950-60년대 브라질 구성주의 미술의 탐구는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올렛은 라흐네양 출판사와 협력하여 파리에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고, 보르도 현대미술관과 바르샤바 현대미술관을 등 여러 기관에서 전시된 바 있습니다.
→ 115쪽

샤나 몰튼
(1976년 출생,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매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샤나 몰튼은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비디오 연작〈속삭이는 소나무〉에서 홈 데코, 셀프케어 도구, 미용 의례를 통해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찾는 또 다른 자아 ‘신시아’로 등장합니다. 파리 팔레트도코, 샌프란시스코 에르바부레나아트센터, 쿤스트하우스 클라루스, 플로리다 세인트피터즈버그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아트포럼』, 『뉴욕 타임즈』, 『아트 인 아메리카』, 『플래시 아트』, 『BOMB』, 『프리즈』, 『아트21』 등의 주요 매체에서 그녀의 작품을 다룬 바 있습니다.
→ 143쪽

수잔 트라이스터
(1958년 출생, 런던에서 활동)

1989년부터 뉴미디어 분야의 선구자로 활동해 온 트라이스터는 과학적 탐구의 최전선과 신비한 계시 사이에서 투과 가능한 경계를 가로지르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신기술, 사회, 대안적 신념 체계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그녀의 작업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드러내고,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미래에 관한 함의를 제시합니다. 트라이스터의 작업은 런던 테이트모던, 제14회 상하이비엔날레, 뉴욕 하이라인, 런던 서펜타인갤러리, 파리龐피두센터 등 다수의 기관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96쪽

슈쵸웨이
(1983년 출생, 타이베이에서 활동)

슈쵸웨이는 작가, 영화감독,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이미지 생산 이면의 복잡한 구조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릴 지역에 있는 국립현대미술학교 르프레뉴어를 졸업한 작가는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대만관을 대표했으며, 상하이, 광주, 부산, 시드니, 멜버른, 아이치, 치앙라이 등 여러 비엔날레 및 트리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도쿄 모리미술관과 에인트호번 반아베미술관에서 주요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아이아트앤드필름프라이즈를 수상하였습니다.
→ 156쪽

스카이 호핀가
(1984년 출생, 뉴욕에서 활동)

스카이 호핀가(호청크족/루이세노 인디언의 폐창가족)는 미국 워싱턴주 펀데일과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컬럼비아강 하류 유역의 토착 언어인 치누크 와와어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영상, 사진, 텍스트 등의 매체를 아우르는 그의 작업은 선주민의 고향 풍경을 중심으로, 문화가 언어에 내재하는 방식을 비롯한 여러 관심사를 다룹니다. 선댄스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뉴욕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제에서 소개되었고, 제77회 휘트니비엔날레,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제12회 에테보리현대미술비엔날레 등에 초대되었습니다. 제78회 휘트니비엔날레의 게스트 큐레이터로 참여하였고, 뉴욕 CCA 바드, 아를 LUMA, 시애틀 프라임미술관, 쿤스트할레 프리아트프리카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180쪽

아노차 수위차론퐁
(1976년 출생, 방콕에서 활동)

영화감독으로서 아노차 수위차론퐁의 작업은 태국의 사회정치사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간영화제 공식 부문에 최초로 초청된 태국 단편 영화는 그녀의 졸업 작품〈그레이스랜드〉(2006)였으며, 첫 장편영화〈우주의 역사〉(2009)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타이거어워드를 수상했고, 장편〈어둠의 시간〉은 2018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작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가는 방콕에서 영화제작사 전기뱀장어필름을 설립하였고, 태국의 영화감독인 비스라 비컷 바다칸, 아딧야 아사랏과 함께 동남아시아 영화 지원에 앞장서는 푸린픽처스를 공동 설립한 바 있습니다.
→ 189쪽

아밋 두타
(1977년 출생,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활동)

아밋 두타는 지금까지 50편이 넘는 영화와 다수의 픽션, 논픽션, 시, 아동문학을 헌두어, 영어, 인도 뭘바이 지역의 언어인 동리어로 소개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픽션, 비주얼에세이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으로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영화는 베니스, 베를린, 토론토, 로테르담, 오버하우젠, 파리 등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 영화제와,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龐피두센터, 버클리 미술관&퍼시픽 필름 아카이브 등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작가의 현재 활동지이기도 한 히말라야 캄그라 계곡 출신의 18세기 미니어처 화가의 이야기를 조명한 영화〈나인스크〉는 『뉴요커』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기영화’로 꼽힌 바 있습니다.
→ 203쪽

안리 살라
(1974년 출생, 베를린에서 활동)

비디오, 사진, 설치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리 살라는 소리, 움직임, 서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하고, 세상을 보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파리 피노컬렉션, 토리노 카스텔로디리올리, 멕시코시티 타마요미술관, 뮌헨 하우스테어쿤스트, 런던 서펜타인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그 밖의 세계 유수 기관에서 작품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제49회 베니스비엔날레 젊은작가상을 수상했고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을 대표한 작가입니다.

→ 88쪽

안민정

(1981년 출생, 서울에서 활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학한 작가는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여러 전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뉴욕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제14회 상하이비엔날레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전에 초대된 바 있습니다.

→ 126쪽

안젤라 수

(홍콩에서 활동)

안젤라 수는 리서치를 기반에 두고 드로잉,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머리카락 자수 등 다양한 매체를 가로질러 활동합니다. 홍콩 타이쿤컨템포러리, 암스테르담 스테델릭미술관, 가오슝미술관, 런던 바비칸아트갤러리, 뉴욕 드로잉센터, 베이징 UCCA 현대미술센터, 제17회 시드니비엔날레 등에서 소개되었고, 2022년에는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을 대표했으며, 2024년 뉴욕 알라흐아트갤러리에서 미국 내 첫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106쪽

에니 베전트(1847-1933)와 C. W. 리드비터(1854-1934)

에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는 신비주의, 영성주의, 자연과학, 동서양의 여러 종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영적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5년 신지학회를 설립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유망한 정치운동가 중 한 명이었던 베전트는 사회주의, 여성권, 아일랜드와 인도의 독립 운동에 앞장섰으며, 1917년에는 인도 국민회의의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한때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던 리드비터는 1883년 신지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1899년에는 잘 알려진 저서 중 하나인 투시에 관한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10년 해변에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를 발견하면서 신지학회의 미래 영적 지도자가 될 인물로서 이 소년을 입양할 것을 베전트에게 권유합니다.

→ 75쪽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

(1978년 출생, 뉴욕에서 활동)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는 학제 간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평론가로, 미네아폴리스 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 학사를 취득한 뒤, 예일 대학교에서 비평이론, 뉴미디어, 판화에 중점을 둔 순수미술 석사를, 뉴욕 스크로브비주얼아트에서 자연, 보존, 홀리스 문제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돌아보는 주제로 예술비평 및 비평 글쓰기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실험 에세이를 발표하고 게스트를 중심으로 토론 및 워크숍을 전개하는 온라인 연재물 『크리티시즘 + 밸류』를 창립하여 관련한 활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 183쪽

엠마 쿤츠 (1892-1963)

스위스의 치유사였던 엠마 쿤츠는 자신에게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방출한 방사선의 형태를 수백추를 이용해 가시화하고 이것을 기하학적 드로잉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약 600점의 드로잉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 1973년 아르가우어 쿤스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뉘셀도르프 쿤스트할레와 파리 현대미술관에서의 회고전을 통해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쿤츠의 작품은 1999년 하랄트 제만 기획의 리옹비엔날레, 취리히 쿤스트할레에서의 전시에서 요셉 보이스, 루돌프 슈타이너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며 예술사적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뉴욕 드로잉센터, 더블린 아일랜드현대미술관, 베른 파울클레넨,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제14회 상하이비엔날레 등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80쪽

온다 아키

(1967년 출생, 미토에서 활동)

여러 장르의 넘나드는 작가, 작곡가, 퍼포머, 큐레이터인 온다 아키는 뉴욕 현대미술관 PS1, 뉴욕 뉴뮤지엄, 필라델피아 ICA, 로스앤젤레스 레드캣갤러리, 미니애폴리스 위커아트센터, 카셀 도큐멘타 14, 파리 루브르박물관과蓬피두센터, 런던 ICA,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등 세계 유수의 기관과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요코하마에서 열린 TPAM 퍼포밍아츠미팅의 게스트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밴쿠버의 웨스턴 프론트에서 총괄 큐레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 205쪽

요셉 보이스 (1921-1986)

1943년 사망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경험했던 요셉보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1951년 뉘셀도르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뒤 같은 학교의 기념비 조각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백남준을 포함한 플럭서스 작가들과 교류하였고, 카셀 도큐멘타 3에 참여했으며, 독일학생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1976년과 1980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 작가로 참여했으며, 1979년에는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했습니다. 1982년 카셀 도큐멘타 7에서는 도시 전역에 7,000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선보인 바 있으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 76쪽

요아킴 퀵스터

(1962년 출생, 코펜하겐에서 활동)

요아킴 퀵스터는 사진, 비디오, 영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개념미술 작가입니다.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파리 팔레트도쿄, 런던 켄든아트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PS1 등 여러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1997년에는 카셀 도큐멘타 10에 참여했고, 2005년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덴마크관을 대표했으며, 2013년에는 카메라 오스트리아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蓬피두센터, 런던 테이트모던,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114쪽

요하나 헤드바

(1984년 출생,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예술가, 음악가인 요하나 헤드바는 에세이 모음집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들려줄까』를 포함한 네 권의 저서와 두 편의 소설과 시를 편찬한 바 있으며, 퍼포먼스, 텍스트,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베를린 그로피우스바우, 런던 ICA, 런던 티나갤러리, 뉴욕 퍼포먼스스페이스, 서울시립미술관, 제14회 상하이비엔날레 등 국내외 여러 전시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음악 앨범으로는 「물고기 자리 네 번째 하우스에 든 블랙문 릴리스」와 「태양과 달」이 있고, 2016년에 발표한 에세이 「아픈 여자 이론」은 열한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 104쪽

윙 포 소

(1984년 출생, 홍콩에서 활동)

윙 포 소는 중의학의 약재를 예술의 재료로 사용하는 설치, 조각, 영상 작업을 통해 자연 속에 숨겨진 상호 연결성, 패턴, 체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선보입니다. 홍콩 파라사이트, 블라인드스팟갤러리, 타이쿤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제13회 타이베이비엔날레, 제14회 상하이비엔날레, 상하이 필미술관, 베이징 엑스뮤지엄트리엔날레, 카트만두트리엔날레, 베이징 UCCA 현대미술센터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 131쪽

윤형민

(1978년 출생, 밴쿠버와 서울에서 활동)

언어, 번역, 의미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아우르는 윤형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런던의 첼시 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밴쿠버 CSA 스페이스, 갠갤러리, 그랜트갤러리와 서울 트렁크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공공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서울 기반의 아티스트 그룹 「퍼블릭퀘스천」의 구성원으로 활동합니다.

→ 94쪽

이승택

(1932년 출생, 서울에서 활동)

이승택은 「비조각」 개념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전위예술가로, 전통 재료와 민속적 오브제를 활용한 장소 특정적 대지미술, 개입과 일회성 퍼포먼스, 차용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기상천외한 작업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승택의 작품은 런던 테이트모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라초프스키미술관, 시드니 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52쪽

인주 첸

(1977년 출생, 타이베이에서 활동)

우주론적 체계를 통해 사회 권력과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을 선보이는 인주 첸은 점성술, 신성 기하학, 연금술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 민족주의, 제국주의, 국가 폭력, 전체주의, 유토피아적 형성, 집단적 사고 등을 탐구합니다. 최근에는 영성, 무속, 불교적 실천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의식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상하이비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리버풀비엔날레, 시드니비엔날레, 우랄산업비엔날레,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국제 전시와 영화제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128쪽

제인 진 카이젠

(1980년 출생, 코펜하겐에서 활동)

예술가이자 영화감독 제인 진 카이젠은 덴마크 왕립미술아카데미의 미디어아트 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억, 이주, 경계의 문제를 다루며, 다층적이고 수행적이며, 시선을 사로잡는 이미지와 시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가 공존하는 여성주의적인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자연과 섬 공간, 우주론, 신화의 재구성, 의례와 영적 실천의 참여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베케트상과 뉴칼스버그재단의 예술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덴마크예술재단의 3년 기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4> 선정 작가이며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의 대표 작가로 참여하는 등 전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 168쪽

조던 벨슨

(1926-2011)

조던 벨슨은 추상적이고 영적 지향적인 영화로 잘 알려진 미국의 예술가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활동 초기에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추상적 형태의 구현을 담구었으며,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사운드 아티스트 헨리 제이콥스와 함께한 '보텍스 콘서트'는 몰입형 시청각 경험을 구현한 선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 동양 철학과 신비주의적 주제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빛과 색채 기법을 활용한 의식을 탐구하는 명상적 시각 경험을 창조했습니다. 벨슨의 작업은 영성, 추상성, 영화의 교차점에 관심 있는 여러 세대의 예술가와 영화 감독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 68쪽

조지아나 하우튼

(1814-1884)

조지아나 하우튼은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 언니 질라의 죽음 이후로 그림 그리기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1859년 한 영매를 통해 언니 질라의 격려를 받은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년에 걸쳐 망자들의 지시에 따라 '영혼 그림'이라는 추상 수채화 연작을 제작합니다. 1871년 작가 생전에 열린 유일한 전시에서 평론가들의 조롱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한참 후 2016년 런던 코틀드갤러리에서 열린 전시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하우튼의 드로잉은 호바트 MONA, 뮌헨 렌바흐하우스, 루트비히스하펜 빌헬름학미술관, 파리 풍피두센터,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미술관,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등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65쪽

주역과 예술품

(1983년 결성)

1983년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치유 도구” 개발을 위한 비영리 연구 단체 ‘켈트 윈드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2007년 미국 메인주 정부에 의해 해산된 단체는 이후 '가족제도 연구 단체'로, 그리고 다시 현재의 '주역과 예술품'으로 재편됩니다. 이들의 작업은 2007년 뉴욕의 피처인코퍼레이션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닉 어빈이 뉴욕의 셰타겔러리에서 기획한 회고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교육 및 연구 콜렉티브로 소개하는 주역과 예술품은 자신들의 작품/제품에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을 붙입니다. "주역과 예술품의 기술과 정보는 오직 실험적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140쪽

카라 디데 한센 (밴쿠버에서 활동)

영화감독이자 교육자인 카라 디데 한센의 작품은 프리즈메틱그라운드, 밴쿠버국제영화제, 안티매터, 플랫폼스영화제, 어니언시티실험영화제, 나이팅게일프로젝트를 통해 진시스켈필름센터 등 장소에서 상영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캠퍼스에서 3년 간의 티칭 레지던시에 선정되었으며, 동대학의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및 뉴 장르 전공으로 영화예술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 145쪽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2012년 결성)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는 30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풀뿌리 선주민 미디어 콜렉티브로, 영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땅과의 유대를 형성하며, 세계적인 토착성의 이미지에 개입을 시도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PS1, 비엔나 제체시온, 뮌헨 하우스데어쿤스트, 벨기에 컨투어비엔날레, 베를린영화제, 아테네 도큐멘타 14, 시드니비엔날레, 오하이오 웨스너아트센터 등 여러 기관과 페스티벌에서 소개되었고, 2022년에는 아이아트애플프라이즈를 수상했습니다.

→ 166쪽

코리타 켄트 (1918-1986)

메리 코리타 수녀로도 알려진 코리타 켄트는 예술가, 교육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18세에 성모성심수녀회에 입회한 그녀는 이후 이매쿨레이트하트칼리지에서 미술학과장을 맡으며 사회 참여적 미술에 관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발전시킵니다. 1968년 수도회를 떠난 후 그녀의 작품은 보다 간결하고 자기성찰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녀는 198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800점에 달하는 실크스크린 판화와 수천 점의 수채화, 그리고 공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수많은 작업을 남겼습니다.

→ 63쪽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 (2012년 결성, 테우아칸에서 활동)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는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시청각의 문법과 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데 관심을 둔 독립 영화감독 그룹입니다. 역사적 아방가르드에서 영감을 받은 이 그룹의 활동은 소외된 현실에 맞선 형식과 내용에 작가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매체, 아카이브, 신화, 선전물, 사회 저항 운동과 다큐멘터리 시를

결합한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의 작품은 비엔나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런던 ICA,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을 비롯한 전세계의 여러 주요 미술관과 영화제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130쪽

키부 루호라호자(1982년생, 키갈리에서 활동)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1981년생, 뉴욕에서 활동)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영화감독 중 한 명인 키부 루호라호자의 단편과 장편 영화는 선댄스, 베를린날레, 트라이베카, 로테르담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런던 테이트모던,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ICA 등 유수의 기관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니암페타의 영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다루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는 작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흑인 영화감독들 사이에서 전통처럼 이어져 온 '야간학교' 애틀 뤼 수아의 기획자이며, 아프리카필름인스티튜트의 공동 설립자, 키갈리 기항가현대미술연구소 도서관 관리인이자, 문화사업활동가이기도 합니다.

→ 182쪽

크레이 첸

(1987년 출생, 싱가포르에서 활동)

영화, 퍼포먼스, 설치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싱가포르의 시각예술가 크레이 첸은 도쿄비엔날레, 아트인카운터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방콕아트비엔날레, 싱가포르국제영화제 등 여러 전시와 영화제에서 소개되었고, 2017년 싱가포르 국립예술위원회로부터 영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 154쪽

타마르 귀마레스(1967년 출생, 코펜하겐에서 활동)와 카스페르 악호이(1976년 출생, 코펜하겐에서 활동)

타마르 귀마레스와 카스페르 악호이는 따로 또 함께 작업하며, 오브제, 상황, 미술, 디자인, 건축이 잔존하는 역사와 이를 선보이는 기관들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들의 공동 작업은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벨기에관,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전, 제31회 상파울루비엔날레, 제11회 샤프자비엔날레, 로스엔젤레스카운티미술관, 볼티모어미술관, 버팔로 올브라이트-녹스갤러리, 파리 주드폼스틀라이트, 알버타벤프센터, 드라와르파블리온, 사우스런던갤러리 등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 티센보르네미사 재단의 현대미술컬렉션인 TBA21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마레스의 작업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샌프란시스코 카디스트재단에, 악호이의 작업은 남트의 프락, 모나코 신국립미술관, 마드리드 노먼포스터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117쪽

하룬 미르자

(1977년 출생, 런던에서 활동)

하룬 미르자의 조각, 퍼포먼스, 몰입형 설치 작업은 빛과 소리를 활용하여 매체와 학문 간의 관습적 경계를 뒤흔듭니다. 후쿠오카의 CCA 기타큐슈, 사우샘프턴 존앤서드갤러리, 멜버른 호주현대미술센터, 버밍엄 아이콘갤러리,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바젤 뮅젤리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슬람예술비엔날레, 베이징비엔날레, 리버풀비엔날레, 다카아트서밋, 샤르자비엔날레 등에서 소개되었으며,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152쪽

히와 케이

(1975년 출생, 베를린에서 활동)

2002년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스탄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주한 히와 케이는 독일에서 정착하기 전에 플라멩코의 거장 파코 페냐에게 음악을 사사했습니다. 그의 조각, 영상, 퍼포먼스는 친구와 가족의 일화, 개인적인 경험, 구술적 형식을 활용하여 대안적인 역사를 서술하고 권력의 서사를 교란합니다. 그의 작품은 트랜트에서 열린 마니페스타 7, 런던 서펜타인갤러리,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카셀과 아테네에서 열린 도큐멘타 14, 뉴욕 뉴뮤지엄, 겐트 SMAK, 뉴욕 현대미술관, 두바이 자밀아트센터, 토론토 더파워플랜트, 베를린 HKW, 이라크 루아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전시된 바 있습니다.

→ 144쪽

힐마 아프 클린트

(1862-1944)

생전에 풍경화와 초상화 화가로 알려졌던 힐마 아프 클린트는 198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린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추상 회화 1890-1985》전을 통해 천사의 지시 하에 그려진 전례 없는 추상 작품이 소개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3년간 헬싱키의 노르딕아트센터에서

기획된 《힐마 아프 클린트의 비밀 그림》전은 뉴욕 현대미술관 PS1으로 순회했으며,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서는 《힐마 아프 클린트 - 오컬트 화가와 추상 미술의 선구자》를 선보였고, 스톡홀름의 릴리에발크스공공미술관에서는 〈신전을 위한 그림〉의 전작을 최초로 소개합니다. 2013년 스톡홀름 현대미술관과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의 주요 회고전이 대중의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힐마 아프 클린트를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 70쪽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2015년 결성, 알마티에서 활동)

ORTA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출신의 배우인 알렉산드라 모로조바(1982년 출생)와 연출가 루스탐 베게노프(1983년 출생)로 구성된 작가 그룹입니다. “새로운 천재들의 극장”으로 통칭되는 이들의 프로젝트는 사상가, 작가, 발명가인 세르게이 칼미코프(1891-1967)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극, 현대미술, 음악, 영화, 기술과 철학뿐 아니라, 전통 공예, 관습과 의례를 결합한 실험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2022년 ORTA는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의 카자흐스탄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191쪽

크레딧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전시교육과장:
양옥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

행정 주무관:
김미영, 김보영, 두미정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영문 에디터:
벤 이스턴

전시 공간 디자인:
컬렉티브

그래픽 디자인: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사운드룸 & 퍼포먼스 큐레이터:
사나 알마제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김나현, 송지영, 이소임, 전지희,
조한울, 주에린

코디네이터:
박은현, 이현주

총무과장:
이영순, 백광진

고객홍보과장:
봉만권, 문철오, 오무오

시설과장:
박지영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서주영

전시교육과 학예연구사:
구해림, 김아영, 송희진

전시교육과 코디네이터:
김연지

총무과 주무관:
박창현, 박호숙, 송은정

고객홍보과 주무관:
권대희, 권연준, 김무연, 윤수광,
유승형, 이문희

고객홍보과 실무관:
김혜미

고객홍보과 코디네이터:
박교수, 박수현, 이영현, 임재욱

시설과 주무관:
노민영, 서혁, 최연식, 허정민

수집연구과 학예연구사:
강세윤, 유민경

운영:
시월이앤씨

작품 운송과 설치:
다산아트

미디어 장비:
만리아트메이커스

공간 구성:
디자인본

티저영상: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스튜디오 NA.EO@상하이.

사진 및 영상 기록:
홍철기

자막 편집:
슈가숏스페퍼

전시 그래픽 시공:
남이디자인

전시 조명:
하이라움

번역:
에이스 번역

통역:
서울리딩룸, 조용경, 조응주

웹사이트:
안그라픽스

관객 만족도 조사:

서던포스트
후원회 세마인 실장:
현선영

작품과 자료 대여 및 제공
작가 및
개인 소장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디아재단, 뉴욕
루돌프슈타이너아카이브, 도르나흐
르부아, 파리
마이크켈리예술재단, 로스앤젤레스
빅토리아영성주의연합, 노스 멜버른
블라인드스팟갤러리, 홍콩
비주얼뮤직센터(CVM), 로스앤젤레스
아트하우스헨리베글린, 서울
엠마쿤츠재단, 뷔렌로스
안뫼트, 브뤼셀
오모토재단, 가메오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코리타켄트재단, 뉴욕
파이어스토틀재단, 스톡홀름
티나갤러리, 런던
P.P.O-W, 뉴욕

후원과 협력

SeMA 기업 후원



SeMA 파트너



SMB 후원



SMB 협찬



SMB 문화 협력



영화 프로그램 미디어 협찬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안내 책자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음성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5, 서울시립미술관, 저작권자

ISBN 979-11-93372-31-9

비매품/무료

94600



9 791193 372326

ISBN 979-11-93372-32-6

ISBN 979-11-93372-31-9 (세트)